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법원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Supreme Court of Korea vol.388  
2017. 08.

# 법원 사람들



## LUCKY

'행운이 찾아오는 데에는 지혜가 필요 없다.  
그러나 행운을 붙잡는 데에는 지혜가 필요하다'  
탈무드의 격언처럼 당신의 지혜로움으로  
8월에는 행운의 월척을 낚아보면 어떨까요.



## Cover Story

이번 호 표지 주인공들은  
즐거운 낚시로 하나되는  
포항지원 낚시동호회  
회원들입니다.

# Contents

2017 August vol. 388

04



06



38



44



발행일 2017년 8월 1일  
 통권 388호  
 발행인 법원행정처장 김소영  
 편집인 공보관 조병구  
 편집총괄 홍보심의관 이종표  
 편집기획팀 박가영, 송소현, 이경미  
 발행처 법원행정처 공보관실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  
 전화 02)3480-1456 팩스 02)533-54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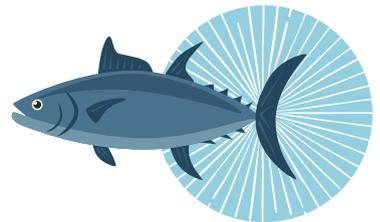
법원사람들 홈페이지 <http://www.scourt.go.kr/portal/gongbo/PeoplePopupList.work?gubun=7>  
 이메일 [법원사람들@scourt.go.kr](mailto:법원사람들@scourt.go.kr)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scourtkorea>  
 트위터 <http://twitter.com/scourtkorea>  
 블로그 [http://blog.naver.com/law\\_zzang](http://blog.naver.com/law_zzang),  
[http://blog.daum.net/law\\_zzang](http://blog.daum.net/law_zzang)  
 유튜브 <http://www.youtube.com/scourtkorea>  
 인스타그램 <http://www.instagram.com/sourthkorea/>  
 기획·디자인·인쇄 (주)성우에드컴 전화 02)890-0900

**소통으로**  
With Local

- : 대구지방법원 포함지원
- 04 **프롤로그**
  - 06 **법원 특!특!**  
공정성으로 법의 가치를 지키고  
애정으로 지역민과 소통하다
  - 10 **포토 카툰**  
대구지방법원 포함지원 낚시동호회
  - 12 **Tour**  
등대 · 포구 · 장터가 어우러진 풍경

**공감으로**  
With Court

- 16 **핫 이슈**  
보호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I WISH CAMPUS'
- 19 **법원으로의 초대**  
에크런(Akron) 대학교 로스쿨 학생  
법원전시관 견학
- 20 **나의 일 나의 삶 I**  
오늘도 행복지수가 +1 상승하였습니다!
- 23 **나의 일 나의 삶 II**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일하는 게 최고의 사치?!
- 28 **테마가 있는 글**  
명때리기
- 32 **조사심의관 코너**  
판례공보와 종합법률정보



**행복으로**  
With People

- 36 **어린이 소식지**  
서울남부지방법원 406호에서! 외 2
- 38 **현장 속으로**  
후견 업무의 전문성으로  
신뢰와 안심을 전합니다!
- 40 **스타일링 Q**  
슈트가이, 윌트 있는 스타일로 변신을 꾀하다  
- 박재홍 서울중앙지방법원 실무관
- 44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가 기부를 멈출 수 없는 이유  
- 가수 박상민
- 48 **Health**  
통증의 왕, 대장포진  
치료에도 골든타임이 있다!
- 50 **트렌드 따라잡기**  
무엇이 '82년생 김지영 신드롬'을 만들었을까
- 52 **COURT NEWS**
- 54 **독자 마당**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글·사진\_편집부



포항 호미곶 '상생의 손'

한반도에서 해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호미곶은 포항을 대표하는 관광 1번지입니다. 이곳에는 화합과 화해로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가자는 의미의 조각물인 '상생의 손'이 있는데, 오늘도 수많은 관광객들에게 손을 흔들며 상생의 안부를 묻는 듯합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도 직원과 직원, 법원과 지역민 간 상생의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대화와 소통의 문을 활짝 열어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공정성으로 법의 가치를 지키고 애정으로 지역민과 소통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1998년 10월 1일 개원한 포항지원은 오는 10월이면 성년을 맞는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세월이지만 분명한 것은 포항시와 울릉군에 적을 둔 시법기관으로서  
법의 공정성 실현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지역민들에게 사랑받는 기관으로 성장해왔다는 것이다.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해온 포항지원 직원들의 선행을 씨줄로, 서로를 향한 배려와 소통을  
날줄로 행복한 법원 조직을 차근차근 직조해온 그들을 만나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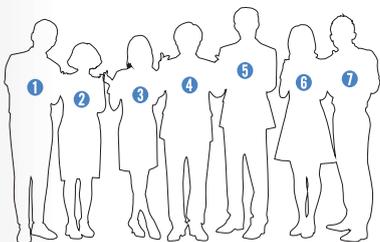
글 이경희 · 사진 장병국 · 영상 오민석



포항시와 울릉군을 아우르는  
포항지원은 법관 12명,  
일반직 8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직원 간의 끈끈한 유대관계로  
일의 효율을 높이고 민원인들에게  
한층 더 성실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 ① 고진달 실무관
- ② 이유예 행정관
- ③ 이은주 판사
- ④ 김기현 지원장
- ⑤ 나상훈 부장판사
- ⑥ 이화진 실무관
- ⑦ 문상혁 실무관



### 모두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포항지원

포항은 공업도시이자 항만도시, 관광도시다. 농촌과 어촌, 산촌이 공존하며 인구도 50만 명이 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생활편의 시설 또한 잘 갖춰져 있다. 타 지역 출신임에도 포항에 정착한 직원이 많은 데는 이 같은 환경이 주는 편리성과 외부 사람들에게 배타적이지 않은 관대한 지역 성향이 큰 역할을 해왔다.

그래서일까? 포항지원은 일하기 좋은, 알짜배기 지원으로 알음알음 소문이 난 곳이다. 올해 초 취임한 김기현 포항지원장은 발령이 나자마자 사방에서 ‘원하는 곳으로 가게 된 데 대한’ 축하인사를 받았고, 서울에서 내려온 판사들은 처음에는 먼 거리 때문에 선뜻 좋아하지 않다가 거주한 지 한두 달만 지나면 엄지손가락을 치켜든다고 하니 그 소문이 결코 근거 없는 것은 아닌 셈이다. 나상훈 부장판사와 이은주 판사는 여기에 덧붙여, 지역민들이 사법기관에 보여주는 높은 신뢰도 역시 포항지원 근무의 만족도를 높인다고 환하게 미소 지었다.

포항시와 울릉군을 아우르는 포항지원은 법관 12명, 일반직 8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많지도 적지도 않은 적당한 규모는 직원 간의 거리를 가깝게 하는 데 크게 일조한다. 탁구회, 축구회, 산악회, 테니스회, 낚시회 등 다양한 동호회 활동은 부서와 직급을 넘어 활발한 소통의 장을 펼치게끔 한다. 김기현 지원장 역시 부임 후 가장 기억에 남는 일로 “동호회 행사에 참석하면서 직원들과 가까워진 것”을 꼽으니, 유독 살갑고 세심한 지원 분위기가 어디서 비롯되는지 넉넉히 짐작이 간다. 직원 간의 끈끈한 유대관계가 일의 효율을 높이고 민원인들에게 한층 더 성실한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이다.

### 소중한 소통, 귀한 지역민들

지역의 사법 서비스 기관으로서 공명정대한 법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포항지원에서 또 하나 공을 들이는 것이 있으니 바로 지역과의 소통을 위한 노력이다.

2007년 포항시립교향악단을 초청하여 개최한 음악회는 이후 매년 시민과 함께하는 가을음악회로 지금까지 꾸준히 열리고 있다. 소외계층인 장애인 관련 행사 역시 지속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작년에는 포항지원 직원들이 포항시 북부장래인복지관 소속 장애인 20여 명과 함께 수목원을 방문하여 산책과 점심시간을 가졌고 올해는 장애인과 그 가족 200여 명에게 제공할 특식 비용을 후원하고 직원들이 직접 배식 봉사도 하면서 장애인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고 소통하는 기회



사회의 어두운 곳을 살피고

억울함 없는 공명정대한

법 집행을 하기 위해 소통과 대화의

가치를 높이 받드는 포항지원.



를 가졌습니다. 자칫 소외감을 느끼기 쉬운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각자가 우리 사회의 소중한 일원임을 함께 깨닫는 거죠.” 김기현 지원장은 하반기에는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영화관을 대관해 다 함께 영화 관람을 하는 행사를 할 예정이라는 이야기도 덧붙였다.

### 법의 가치를 실현하는 포항지원

포항지원 지원장실에는 포항지원 개원 당시부터 액자가 하나 있다.

法不阿貴 繩不撓曲(법불아귀 승불요곡), 法之所加 智者弗能辭 勇者弗敢爭(법지소가 지자불능사 용자불감쟁), 刑過不避大臣(형과불피대신) 賞善不遺匹夫(상선불유필부).

“법은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으니 먹줄에 굽음이 없는 것과 같다. 법이 행하여짐은 지혜로운 자도 마다할 수 없고 용감한 자라도 감히 다룰 수 없다. 잘못에 대한 벌은 대신도 피할 수 없고 선행에 대한 상은 필부도 빠뜨리지 않는다.”

한비자(韓非子) 유도편(有度篇)에 나오는 이 글귀는 법의 가치는 공정성에 있음을 강조하는 것으로 포항지원이 가고자 하는 궁극적인 지표이자 다짐이다.

사회의 어두운 곳을 살피고 억울함 없는 공명정대한 법 집행을 하기 위해 소통과 대화의 가치를 높이 받드는 포항지원. 이곳이 있기에 포항시민과 울릉군민의 일상 만족도와 행복도는 매일 1%씩 더 오르고 있음을 확신한다. c



Mission Start

## 나만의 드립커피를 즐겨라!



## Interview



김기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장



QR코드를 스캔하면  
유튜브에서 최재  
동영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 “진정성 가득한 선행과 지역민과의 소통으로 새롭게 도약할 것”

지난 2월에 포항지원에 온 저는 포항지원 생활을 매우 소중히 보내고 있습니다. 각종 동호회 행사에 참석하여 직원들 개개인을 알아가는 것은 물론 지난 6월에는 문화예술에 관심 있는 직원들과 함께 문화예술동호회를 창설하여 첫 모임으로 프로야구 경기를 관람, 신나게 음원을 즐기기도 했지요. 저는 이 같은 포항지원의 가족적인 분위기 속에서 근무여건을 점차적으로 개선하고 서로 화합하여 도와가며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 포항지원을 즐겁게 근무할 수 있는 직장으로 만들어나가는 일에 일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즐겁게 일하는 사람은 마음의 여유와 직장에 대한 애착으로 업무 능률 또한 향상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 포항지원에 부임해와서 우리 직원들에게 가장 많이 한 이야기는 시간을 조금 더 할애하여 민원인, 당사자의 말을 경청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업무처리 과정에서 응대가 부실할 경우 결과에 대한 불만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지만, 반대로 자신의 이야기를 상대가 충분히 들어줬다고 생각할 경우 법의 판단을 수긍하고 받아들여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또한 지원과 지역민의 소통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개인적으로 포항지원에 와서 가장 크게 감동한 점은 직원들이 지역에서 꾸준히 펼쳐온 '새싹화' 봉사활동에 대해 알게 된 것입니다. 2004년 10월에 결성되어 37명의 직원이 활동하는 이 봉사단체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불우한 환경에 있는 학생들을 선발하여 매월 쌀, 부식, 라면 등을 지원하고 연말에는 그 밖의 어려운 학생이나 이웃에게 연탄, 신발, 체육복 등의 물품을 지원합니다. 놀라운 것은 외부에 이 활동을 전혀 드러내지 않은 채 그 흔한 기념사진 한 장 없이 13년 동안 묵묵히 물밑에서 봉사활동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지원을 떠난 뒤에야 화비를 보내오는 직원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진정으로 지역민들을 사랑하고 소통하고자 하는 포항지원 사람들의 참모습을 보는 것 같아 정말 감사하고 기쁩니다. 올해로 20년 차를 맞이하는 포항지원에 지난 19년은 태동기이자 성장기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새롭게 도약하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갖추어온 인적·물적 시설 및 업무 노하우를 바탕으로 질 높은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사법기관으로서 제 몫을 다하겠습니다.

## MINI Interview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사람들의 한마디

## 가장 기억에 남는 내 인생의 영화는?



## 나상훈 부장판사

대학교 입학 후에 본 첫 영화로 기억하는 <쇼생크 탈출>은 감옥 안에서 역설적으로 희망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게 해준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영화 속에서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의 '편지의 이중창'이 나오는 장면을 감추합니다. 각자 자기만의 '쇼생크 감옥'에서 잠시라도 탈출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 이은주 판사

저는 <레미제라블>이 기억에 남습니다. 웅장한 화면, 아름다운 OST, 배우들의 섬세한 열연이 인상 깊었어요. 당시 남자친구(현 남편)와 함께 영화를 봤는데, 마지막 장면에서 남자친구가 눈물을 뚝뚝 흘렸던 기억이 나네요. 그 여운 때문에 OST를 무한 반복해서 들었답니다.



## 이유예 행정관

<유스>는 친구 관계인 노년의 거장 예술가들이 스위스 휴양지의 호텔에서 시간을 보내는 이야기입니다. 스위스 산악지대의 풍경과 예술가들의 대화, 반전 장면, 유럽 상류층 노년들의 휴양 모습, 영화음악이 인상 깊었습니다. 무엇보다 조수미 씨의 공연이 기억에 남네요.



## 이화진 실무관

인생에서 기쁨을 얻었는가? 당신은 인생에서 다른 이에게 기쁨을 주었는가? 천국의 문에서 받는 두 가지 질문이라고 합니다. 누군가의 기쁨이 되고 기쁨을 주는 영화 <버킷리스트>는 다른 아닌 '일상의 즐거움'인 것 같습니다. 일상의 소중함을 생각하게 되는 <버킷리스트>를 추천합니다.



## 문상혁 실무관

결혼 후 모처럼 본 영화가 <인턴>이었습니다. 30세 CEO와 70세 인턴의 전형적인 감동 스토리이지만, 70세 인턴의 모습에서 새로운 일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포용과 타인을 위한 세심한 배려를 보았습니다. 직장과 가정에서의 나의 모습을 뒤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 고진달 실무관

지금까지 많은 영화를 보았지만 제일 감동이 컸던 영화는 <말아톤>입니다. 스무 살 자폐증 청년의 마라톤 완주 과정을 그린 이 영화를 보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됐으며, 저 또한 마라톤을 시작하게 되어 지금까지 즐기고 있습니다. 삶이 힘들고 지칠 때 감추합니다.

Hot!



오늘은  
우리 포항지원  
낚시동호회의  
출조날!

날짜가 잡힌 순간부터  
회원 모두가 설레임과  
흥분 속에 기다린 날이었죠.



푸른 수평선이  
끝없이 펼쳐진 동해바다는  
우리의 보물창고!



# 우리는 포항지원의 강태공!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낚시동호회

글\_이경희 · 사진\_장병국

Show time



재! 그럼 모두  
보물을 낚으러  
출발해보실까요?



포항지역의 유일한 여성회원들도,



고래를 잡겠다는 포부가 넘치는 남성회원들도 모두 승선 완료!



으랏차차, 제일 먼저 도다리부터 잡아 올리고!!



한 번에 세 마리, 일타삼피! 지화자~



도다리와 횡대를 한꺼번에!



어신으로 불리는 나, 이상철도 빠지면 섭섭하지. 에헴~



갓 잡아 올린 생선으로 신선한 회를 한상 가득 차려봤습니다. 크~조타

자자, 낚았으니 이제 파티를 열어볼까요?



동해바다를 누비는 포항지역 낚시동호회에 가입하세요.

Yeah



"어서 오이소~~"

낚시를 모른다고요? 걱정마십시오. 우리에게 일등사수 홍선희 부회장님이 있으니까요.

손맛과 동료애로 하나되는 포항지역 낚시동호회!

등대 · 포구 · 장터가 어우러진 풍경

포항지역의그 여행지

浦項

포항의 바다는 묘한 대비가 흥미롭다.  
한반도 동쪽 끝자락에는 100년 세월의  
등대가 있고, 포구 뒷골목에는  
일본인 거리가 고스란히 남아 있다.  
바다와 맞닿은 도심 죽도시장의  
시끌벅적한 장터는 운하와 연결되며  
포항 나들이를 넉넉하게 단장한다.

글 · 사진\_서영진(여행칼럼니스트)

사진협조\_포항시청



포항 여행의 단아한 정취는 호미곶, 구룡포로 이어지는 길에서 듬뿍 묻어난다. 호미곶의 아침 풍경은 한갓지다. '상생의 손' 위에서 갈매기들이 노닥거리고, 일출의 감동을 지우지 못한 연인들이 삼삼오오 해변을 서성거린다. 고깃배들이 무심코 지나가는 바다는 거침이 없는 망망대해다. 발을 딛고 선 땅이 한반도의 동쪽 끝이라는 생각에 잠시 시큰해진다.

일상의 한가로운 풍경과 달리 호미곶은 해 뜰 무렵이면 사계절 들쭉이는 곳이다.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명소로 장엄한 해돋이에 기대어 사랑받아왔다. 대동여지도를 만든 김정호는 호미곶을 호랑이 꼬리에 해당하는 한반도 동쪽 끝 명당으로 치켜세웠고, 육당 최남선은 '조선 10경'의 하나로 꼽기도 했다. 등대 옆에도, 가로등에도 호랑이가 매달려 있는 이채로운 풍경들이다.

### 호미곶, 구룡포의 살가운 정취

그 사연 가득한 터에 호미곶 등대가 들어서 있다. 1908년에 세워졌으니 등대의 나이는 100세를 훌쩍 넘어섰다.

1. 곡선형 근대식 외관을 지닌 호미곶 등대는 포항의 바다와 100년 세월을 함께 했다.
2. 등대박물관이 들어선 호미곶 풍경. 동해 끝단인 호미곶은 일출을 맞는 명소로 사랑 받고 있다.





3



14

4

3. 구룡포의 장안동 골목에는 나무로 단장된 일본식 가옥들이 웅기충기 들어서 있다.
4. 포항 도심의 명물로 자리잡은 죽도시장은 현지인과 관광객들이 뒤엉켜 늘 북적거린다.
5. 포항 북단에 위치한 월포 해수욕장은 수심이 얕아 여름 바캉스 시즌에 인기가 높다.

1903년에 불을 밝힌 인천 팔미도 등대 등과 함께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등대에 이름이 올라 있다. 등대 옆에는 국내 유일의 국립등대박물관이 자리해 우리나라 등대의 어제와 오늘을 가지런히 전시 중이다. 호미곶에는 해와 달의 전설이 서린 연오랑 세오녀상, 최대 규모의 가마솥, 새천년 기념관 등 구경거리가 넘실거린다.

호미곶에서 남쪽으로 내려서면 구룡포로 이어진다. 아침 경매가 끝난 뒤 한가로운 구룡포항 골목을 거닐면 비린 미역 냄새만큼이나 사연들이 진국이다. 횃집 간판이 즐비한 식당 뒷길로 들어서면 일본식 가옥들이 늘어서 있다. 장안동 골목은 예전 일본인들의 집단 거주지로 격자형 2층 집 50여 채가 고스란히 남아 있다. 골목길은 일본 가옥들을 새롭게 다듬어 문화의 거리로 재탄생됐다.

마을 뒤편 언덕길은 구룡포 공원으로 연결된다. 공원 언덕은 예전 구룡포항을 축항했던 일본인 수산업자 ‘도가와 야스브로’의 비석이 있던 곳이다. 언덕에 오르면 일본인 가옥들과 포구가 한눈에 내려다 보인다.

### 해안 최대 규모 죽도시장

시내로 접어들면 포항의 바다 풍경은 제법 북적거리고 유

유해진다. 죽도시장은 동해안 최대 규모의 전통시장이다. 관광객과 현지 주민이 뒤엉키고, 갓 잡은 수산물에서 건어물까지 좌판대에 넘쳐난다. 죽도시장이 본격적으로 문을 연 지 40여 년, 최근에는 ‘한국관광의 별’로도 선정되며



5

명성을 높였다. 포항역에서 걸어서 닿는 시장에는 문어골목, 젓갈골목, 떡집골목, 건어물골목, 한복골목, 혼수골목 등이 줄줄이 늘어서 있다.

죽도시장의 간판주자는 어시장이자 파는 사람도 신명 나고, 구경 온 사람들도 어느 곳에서보다 분주하다. 고래고기는 죽석에서 쓱쓱 썰어 저울에 담아 팔고, 대게를 찌는 가마솥은 한여름 더위에도 폴폴 김을 뿜어낸다. 노래미, 광어 등 횡감은 인근 회 센터에서 곧바로 맛볼 수 있다.

죽도시장을 나서면 해변을 따라 포항운하로 연결된다. 운하를 따라 조형물들이 가지런하게 단장됐으며 운하를 오가는 유람선은 송도해수욕장까지 총 8km를 유유자적 떠다닌다. 포항이 품은 해수욕장들 역시 더위 탈출을 돕는다. 영일대 해수욕장은 카페와 해변이 어우러져 흡사 부산의 광안리를 닮은, 포항 청춘들의 아지트다. 바다 건너로는 영일만과 POSCO 불빛이 아득하다. 포항 북쪽으로는 칠포, 월포, 화진해수욕장이 포도송이처럼 매달려 있다. 월포 해수욕장은 수심이 얇고 한적한 솔숲이 탐스러우며, 최북단 화진해수욕장은 내연산 12폭포 등을 함께 둘러볼 수 있다. ☐



TIP

먹거리

갯잡은 흰생선 살만을 고집하는 게 정석,  
‘포항물회’



포항의 여름 별미로는 물회를 빼놓을 수 없다. 구룡포뿐만 아니라 포항 시내 북부시장, 죽도시장 등에서 물회는 단골로 식탁 위에 오른다. 동해안 어디서나 물회를 즐길 수 있지만 유독 ‘포항물회’라는 이름이 명성 높다.



물회는 말 그대로 ‘물에 말아 먹는 회’다. 싱싱한 횡감에 마늘, 생강, 깨소금, 김가루 등의 양념을 넣은 뒤 고추장을 섞은 냉수를 부어 먹는다. 예전에 포항 어부들이 갯잡은 생선에 채소와 물을 부어 급하게 먹던 방식이 이후에 이곳 주민들 사이에서 향토음식으로 굳어졌다. 포항물회는 갯잡은 흰생선 살만을 고집하는 게 정석이다. 식당에서는 광어, 우럭, 도다리, 노래미 등 다양한 제철 생선이 횡감으로 쓰인다. 포항물회의 원조는 죽도시장이지만 현지인들이 즐겨 찾는 식당은 북부시장 도로변에 위치한 오대양 물회식당이다. 이곳에서는 시원한 물회에 밑반찬으로 곁들여 나오는 밥식해가 또 별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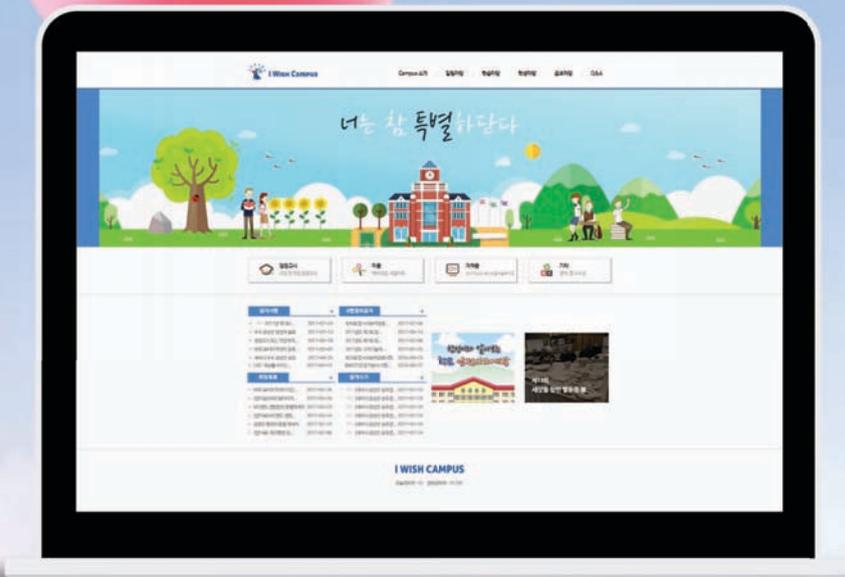
구룡포 일대의 진미는 과메기다. 겨울이 제철인 과메기는 요즘은 보존기술 덕에 사시사철 맛볼 수 있다. 과메기로 쓰이는 생선도 세월에 따라 변모했다. 예전에는 청어가 주로 쓰였고 대안으로 꽂치가 애용되다가, 최근 청어 풍년으로 다시 청어 과메기가 등장했다. 푸른 빛깔에 윤기가 나는 것이 맛 좋은 과메기다. 특유의 비릿함을 다스리기 위해 김, 쪽파, 마늘, 미역, 고추 등과 곁들여 먹어야 제맛이다.



더위에도 대게의 인기는 식을 줄 모른다. 죽도시장을 거닐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곳이 있으면 대부분 대게식당이다. 영덕, 울진이 대게로 명성 높지만 포항 역시 빠지지 않는다. 대게는 쪽 뺨은 다리가 대나무를 닮았다고 해서 이름 붙여졌는데 찜으로, 탕으로, 회로 먹는다. ‘게 맛’을 제대로 보려면 쪄 먹어야 한다. 속이 알찬 대게의 속살은 짠맛이 아닌 단맛이 난다.

# 보호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I WISH CAMPUS'

의정부지방법원, 지난해 7월 사이버 학교 개교로 다양한 온·오프라인 강의 '화제'



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해 7월 전국 법원 최초로 사법 역사상 처음으로 보호소년을 위한 사이버 학교인 'I WISH CAMPUS(희망의 학교)'를 개교했다. 'I WISH CAMPUS'는 검정고시, 미용 자격증, 여학 등 다양한 분야의 온·오프라인 강의와 관련 교재를 제공함으로써 보호소년 및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배움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글\_편집부

'I WISH CAMPUS(www.goiwcc.co.kr)'는 학업을 계속하고 싶어도 가난으로 계속할 수 없고 도움의 손길이 닿지 않은 아이들에게 의미 있는 도움을 주고자 법원에서 개교한 사이버 학교인 '희망의 학교'다. 점차 늘어가는 청소년 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와 보호소년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하여 법원이 마련한 이 사이버 학교는 검정고시를 포함한 각종 자격증시험에 대한 교육 동영상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이와 함께 공부방 운영, 검정고시 대비 모의고사 실시, 제과제빵 및 미용 대회와 축구대회 개최 등 오프라인(off-line)에서도 폭넓게 지원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이 주도하여 2016년 7월 4일 개교한 '희망의 학교'는 현재 75명의 청소년이 가입하여 강의를 듣고 있으며 보호시설, 소년원 등 교정기관에서 강의 자료로 적극적으로 활용해 누적 접속 수가 7만 3,000여 건에 달한다. 'I WISH CAMPUS'의 한 관계자는 "상당수의 청소년 범죄는 빈곤, 가정 파탄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고 교정하기 위한 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법원이 지난해 개설한 'I WISH CAMPUS'는 보호소년들에게 처벌 대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꿈과 목표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8월에는 청소년들의 접근성을 더욱 높이기 위한 모바일웹 개발이 완료되므로, 각 법원과 여러 기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해당 콘텐츠가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효과적으로 제공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I WISH CAMPUS'의 다양한 프로그램 소개

### # 학습 동영상 무상 제공

'I WISH CAMPUS'에서 제공하는 강의를 통하여 중·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 메이크업·네일아트 등 미용 분야 자격증, 전기기능사·환경기능사 등 기술 분야 자격증, 컴퓨터활용능력이나 정보기기운용기능사 등 컴퓨터 관련 분야 자격증을 준비할 수 있다. 기초영어, 한국어, 한자 등 인문 강의도 마련되어 있으며 인문·교양 강연 프로그램인 CBS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의 강연 영상도 제공해 청소년들의 인격 형성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이 모든 자료를 무상으로 제공해 형편이 곤란한 청소년에게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 # 공부방 개설

'I WISH CAMPUS'를 이용하여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보호소년을 위하여 법원에 공부방을 개설해 자원봉사자들이 교습할 수 있는 장을 만들었다. 올해 1월부터 4월 검정고시까지 총 22회에 걸쳐 이루어진 강의를 통하여 총 6명의 학생이 검정고시에 응시하여 5명이 당당히 합격하는 소기의 성과를 일궈냈다.

### # 검정고시 대비 모의고사 실시

'I WISH CAMPUS'를 이용하여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을 위하여 작년 12월, 올해 3월 모의고사를 실시했다. 이는 평소 자신이 공부한 내용을 되돌아보고 정리할 기회를 제공하여 검정고시 합격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기획되었으며 성적우수자에게는 소정의 상품도 제공하여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한편 모의고사와 함께 진로 교육도 진행하여 학업이 단절된 청소년들의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함께하고 있다. 7월과 12월에도 계속될 예정이다.



## 'I WISH CAMPUS'의 다양한 프로그램 소개

### # 축구대회(슈팅스타) 개최

'I WISH CAMPUS'에서는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행사로 보호시설과 연계하여 축구대회(슈팅스타)를 개최하고 있다. 이 대회는 축구경기를 통하여 청소년이 꿈을 키워갈 수 있는 동기와 희망을 얻을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하여 작년 5월 3개 기관의 310여명 규모로 진행하였다. 올해 6월에는 대한축구협회 산하 축구사랑나눔재단의 후원을 받아 4개 기관 350여 명의 보호소년이 함께하였다. 이영표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희망의 학교 명예교수), 임은주 안양FC 단장 등 축구 스타들도 함께하여 청소년들에게는 더욱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 # 미용·제빵경연대회(미용 : makeup, make me / 제빵 : 꿈 굽기) 개최

'I WISH CAMPUS'에서는 미용과 제과제빵에 관심이 많은 청소년들에게 직업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 평소 닦아온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세계 청소년의 날(매년 8월 12일)에 맞추어 개최하는 이 대회는 오세득 셰프(희망의 학교 명예교수)와 MBC뷰티아카데미 김채호 대표(희망의 학교 명예교수)가 함께하여 참가 청소년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고 있다. 올해 대회는 제과제빵 명장인 김영모제과점의 김영모 명장도 함께할 계획이다.

### # 명사 인터뷰(희망톡톡)

'I WISH CAMPUS'에서는 각계각층 명사(名士)의 인생역정, 성공 비결 등을 엿보으로써 청소년들의 진로 설정에 도움을 주고자 인터뷰를 게재하고 있다. 제과제빵 명장 김영모, MG밴드 전한빈, MBC아카데미 이은경의 인터뷰를 게재하였고 한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준우승하며 '검팔이 폴 포츠'로 명성을 크게 얻은 성악가 최성봉씨의 인터뷰도 곧 게재할 예정이다. 인터뷰와 함께 응원 메시지도 게재하여 청소년들을 격려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여러 직업군의 명사를 인터뷰할 계획이다. c



# 세계화에 발맞추는 한국의 법원과 법률 시스템이 놀랍습니다

에크런(Akron) 대학교 로스쿨 학생 법원전시관 견학

글\_박주광 · 사진\_장병국



지난 7월 28일 오전 10시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경희대 로스쿨) 관계자의 인솔로 미국 오하이오주에 위치한 에크런 대학교 로스쿨(이하 에크런대 로스쿨) 학생들과 관계자 16명이 법원전시관을 방문했다.

에크런대는 경희대의 파트너 대학으로, 에크런대 로스쿨 학생들은 법률 학술교류 차원에서 방한한 때에 맞춰 대법원과 법원전시관을 방문했다.

에크런대 로스쿨 학생들은 법원전시관을 견학하면서 한국 법의 기원, 역사, 법원의 체계, 법률 시스템 등을 배울 수 있었다. 또 대법정과 소법정을 둘러보면서 대법관들의 역할과 업무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특히 에크런대 로스쿨 학생들은 한국의 전자소송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다. 한국의 전자소송 시스템이 세계 1위를 차지할 만큼 빠르고 정확하며 국민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했다는 점에서 학생들과 관계자들은 감탄했다.

이어서 ‘판사와의 대화’ 시간에는 김영기 판사가 능숙한 영어로 한국 법원과 법률 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이날 동행한 사라 크레이브스 교수는 ‘대법원에서 많은 판결을 처리하는데 고충은 없는지’를 질문했고, 이에 김영기 판사는 “많은 판결문을 처리하는 것도 사실이고 그만큼 대법관들의 업무 강도도 높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공정한 판결을 위해 법 해석과 연구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판사라는, 법관이라는 책무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한국의 판사들은 공정하고 올바른 판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최광준 경희대 교수는 “이번 에크런대 로스쿨 학생들의 방문을 시작으로 많은 교류가 이루어지길 기대해본다. 특히 대법원 전시관 견학을 통해 에크런대 로스쿨 학생들에게 세계화에 발맞춰 발전하고 있는 한국 법률 시스템이 놀라움으로 기억됐으면 한다”고 같음했다.

매슈 윌슨 에크런대 로스쿨 학장은 “매우 인상 깊은 방문이었다. 특히 한국의 전자소송 제도에 매우 감명했다. 전자소송의 신속함과 정확성은 법원에는 효율적으로 업무 처리를 할 수 있게 하고 국민에게는 편리함을 준다. 이런 유기적인 업무가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에 다시 한번 놀랐다. 특히 글로벌화, 세계화 시대에 맞게 한국 법원과 법률 시스템이 진화하고 있는 것에도, 관계자들의 숨은 노력에 대해서도 찬사를 보낸다”며 깊은 감명을 표했다. ☐

# 오늘도 행복지수가 +1 상승하였습니다!

글\_김정효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실무관



누군가는 한 번쯤 질문합니다. “행복하세요?”

그럼 저의 솔직한 대답은 이렇습니다.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간단하지만 대부분 사람이 저처럼 명쾌하게 답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대개 이런 질문을 받으면 반응이 저와 비슷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건 아마도 ‘아니요, 안 행복한데요’라고 말하면 정말 자신이 불행한 사람이 될 것 같아서인 듯합니다.

2015년 3월 말까지 저는 수험생이었습니다. 말이 좋아 수험생이지, 성인이 수험생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백수란 거죠. 대학 3학년이 끝나고 구체적으로 앞으로의 진로 선택이 필요한 시점에 자취방에 있던 라면 받침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법원직 공무원에 대해 언급되어 있던 책이었습니다. 그 길로 휴학계를 내고 무작정 노량진으로 올라갔습니다. 과목이 많으니 일단 이걸로 공부를 시작하고 나중에 직렬을 선택하자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막상 시작하고 매일 반복되는 일상을 보내다 보니 직렬



에 대한 생각은 어느 순간 없어지고 한길만 보고 달리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법대 출신도 아니고 주변에 물어볼 사람도 딱히 없던 저로서는 그냥 묵묵히 주어진 일상을 보낸 것인데, 지금은 대한민국 법원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처음 합격 소식을 확인했을 때에는 사실 큰 감흥이 없었습니다. 해야 할 숙제를 막 끝냈으니 ‘이제 한숨 돌릴 수 있겠구나’ 하는 정도의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부모님께 전하고 가족·친지들과 친구들에게 전해지면서 축하를 받고 동기로 지내게 될 사람들과 서로 축하를 주고받으면서, 내가 숙제를 제대로 풀긴 풀었구나 하는 생각에 점점 저 자신이 뿌듯해지고 막혀 있던 가슴이 열리는 듯하였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어떻게 일했는지 생각해보면 늘 야근의 연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업무 처리를 하면서 야근 일정표를 따로 짜서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일 년을 보냈는데, 현재 시점에서 작년 한 해가 어땠냐고 물어보면 저는 좋았다고 대답합니다. 작년보다도 지금 일이 많이 줄어서 그럴까요? 물론 그건 아닙니다.(ㅠㅠ) 그럼에도 제가 좋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지난 한 해 동안 함께 보낸 사람들과의 좋은 추억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신없이 일하는 와중에 전화벨이 울려서 받으면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시는 선배님의 연락인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쯤 시간 괜찮냐, 같이 밥이나 먹자’ 혹은 ‘일 끝내면 몇 시쯤 돼? 같이 한잔할까?’ 등... 이런 연락을 받고 나면 모니터만 보고 기계적으로 일하다가도 괜히 주변에 계신 분들을 한번쯤 둘러보게 됩니다. 그러고는 나도 법원 조직의 일원임을 상기하게 되고, 웬지 막혔던 머리가 조금은 풀리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행복하세요?”라는 질문에 답변이 망설여지는 것은 아마도 우리가 구체적인 기억에 관해서는 망각하기 때문일 겁니다. 살면서 누구라도 뇌리에 꼭 박힐 정도의 경험은 얼마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지나다 보니 힘들던 고비를 지나게 되고, 다시 새로운 고비가 오는 듯하고... 그러는 와중에 누군가에 대한 좋은 기억이 생기고 누군가에 대해서는 안 좋은 기억이 생깁니다. 그런데 좋은 기억은 무엇이었고 나쁜

기억은 무엇이었는지 내용을 물어보면 막상 내용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복감을 느낄 수 있던 순간순간의 일들이 대부분 작거나 사소한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가 놓친 일정을 누군가가 언급 해주거나, 커피 한잔하면서 담소를 나누는 등 이런 사소한 일상에서 생기는 감정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정작 머릿속에 그 내용은 큰 기억으로 남아 있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한 좋은 '느낌'으로 남아 있는 듯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모든 세포가 그 '느낌'을 기억하는 것이죠.

결국 행복의 연관어는 사람입니다. 큰 기억이든 작은 기억이든, 좋은 기억이든 나쁜 기억이든, 내가 느끼는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건 사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내가 느끼는 행복은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관계 속에서 형성됩니다. 이것은 양적인 문제도 아니고 기술적인 문제도 아닙니다. 내가 어떤 성과를 이루었을 때 그 성과를 언급해줄 사람이 없다면 내가 한 일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이 많아서, 아는 사람이 많아서, 혹은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맡은 일에 충실하고 옆 사람을 배려하며 지내다 보면 내가 배울 것이 많아지고,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생기고, 나에게 대해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이 생길 것이고, 곧 그것이 나의 행복지수를 높여가는 방법일 것입니다.

법원에서 오래 근무하신 선배님들께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일이 힘든 건 참을 수 있는데 사람하고 안 맞으면 정말 참기 힘들다...”

사소한 이기심이나 개인적인 편의를 위해서, 또는 효율성이란 핑계로 다른 동료들에게 업무를 부담시키거나 책임을 전가하고 있진 않은지요? 우선 나부터 자신의 일을 책임감을 가지고 충실히 하고 있는지 생각해보고 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면, 이미 그 자체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다른 이의 행복지수 상승에 기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질문을 반대로 해보겠습니다. “지금 불행하세요?”

이 질문을 받고 대답이 망설여진다면, 우리는 이미 어느 정도 행복감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닐까요?

야근 후 퇴근하는 길에 친구와 통화를 했습니다.

친구는 아직도 회사에 있었습니다...

저녁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는  
행복한 법원공무원입니다. ☐



#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일하는 게 최고의 사치?!

글\_김성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사법보좌관

## 1. 재미와 의미!

2017년 상반기 최고의 드라마는 ‘도깨비’, 최고의 예능은 ‘윤식당’이라는 설문조사 결과를 최근 본 적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두 작품은 모두 tvN에서 방영되었고, 그 채널의 2017년 새로운 슬로건인 ‘재미와 의미’라는 브랜드 캠페인 영상이 자연스레 떠올랐습니다. “웃음 끝에는 배움이 있어야 하고, 즐긴 뒤에는 남는 게 있어야 한다. 인생에는 두 가지 맛이 모두 필요하다. 재미와 의미 O tvN”이라는 단순하고 짧은 말이 주는 마음속 울림은 두 작품의 세계관과 묘하게 닿아 있었습니다. 두 작품 모두 획일화된 주제 의식을 강요하지 않으면서 기존 개념(도깨비, 저승사자, 식당)을 전혀 새롭게 느끼게 하고, 각자의 일상과 자연



스럽게 연결되게 하는 작은 배려가 돋보였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많은 사람이 공감하고 오랫동안 기억하게 한 비결은 아마도 인간에 대한 존중과 작은 배려라는 기본에 충실했던 것 아니었을까요. 다양한 법원 사무를 계기로 이루어지는 소통 또한 그 존중과 배려의 마음으로부터 시작하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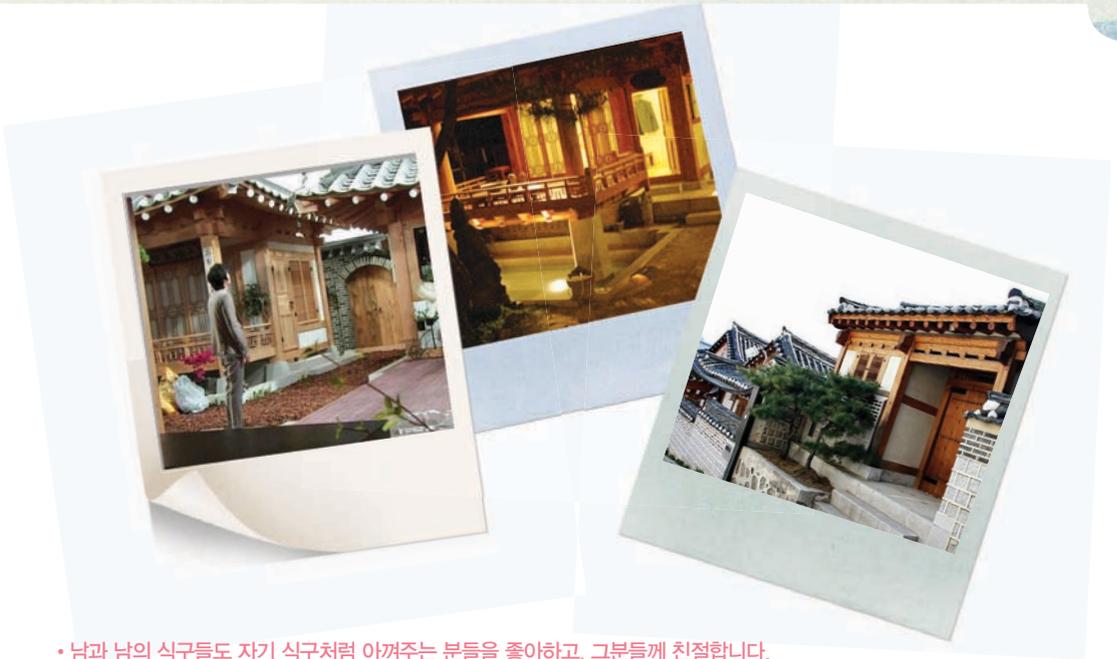
## 2. 처음과 다음!

도깨비의 ‘첫사랑’이라는 소재가 주는 느낌을 굳이 말하지 않아도 처음이라는 기억은 오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원사람들>과의 첫 인연은 법원 사무관 8년 차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있던 시절 제가 담당하던 다양한 법원 사무 중 가장 기억(마음)에 남는 일, 성 소수자 인권 관련 가족 관계 등록계 일을 담당하며 2013년 10월호 <법원사람들> ‘나의 일 나의 삶’에 ‘성소수자와 소통하기’라는 짧은 글을 쓴 것입니다. 당시를 회상하면 제 일도 너무나 좋았고 일을 통해 전국 법원에서 많은 질의를 받던 때여서 <법원사람들>을 통해서 일 이야기를 짧게 나눴던 경험도 좋았지만, 함께 밥 먹고 웃고 울고 서로의 일상에 공감했던 가족관계등록계 식구들에 대한 기억이 많이 나서 보고 싶어집니다. 당시가 오래 기억되는 것은 일을 통해 의미를 만들어갈 수 있던 시기였기도 했고 또 무엇보다 함께 일한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서였습니다. 최근 윤식당의 윤여정 선생님 인터뷰 기사를 우연히 보다가 “비싼 옷을 입고 비싼 가방을 드는 것도 사치지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일하는 게 최고의 사치라고 생각한다”라는 말에 크게 공감했습니다. 다른 시간, 다른 곳에서 일하며 무례한 사람, 심지어 악인과의 어쩔 수 없이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느꼈던 피곤함, 억울함, 우울함과 분노라는 감정이 소용돌이치는 눈물의 비빔밥을 한 번쯤은 먹어본 직장인들에게는 이런 최고의 사치는 그저 꿈일 수밖에 없을까요? 우연히 마주치면 기적일 것일까요?

## 3. 개인의 취향!

‘나의 일과 나의 삶’이라는 지면을 통해 두 번째 인사를 드리는 저는 지극히 개인적인 취향(성미)을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실 어떤 주제를 연구하여 발표하며 공감하는 일을 좋아하는 저는 이상하게 자기소개를 할 때마다 긴장되고 떨립니다. 부끄럼이 많은 제가 첫 번째 만남에서 제 일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다면, 두 번째 만남에서는 제 삶, 개인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사실 지면으로 하는 자기소개도 떨립니다. 다음과 같이 두서없이 마음 가는 대로(조금 작은 글씨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아주 오래되거나 아주 새로운 것에 자주 반합니다.
- 운동과 음악을 즐기나, 부끄럼을 잘 타는 편입니다.
- 겉으로 작게 보이는 일에 오랜 시간 집중해서 뭔가 의미를 발견하기를 좋아합니다.
- 만찬은 집안 식구들과, 오찬은 법원 식구들과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를 나누며 먹기를 좋아합니다.
- 이 세상 사람 중에 부모님을 가장 존경하며, 스승님 중에서는 가족법 교수님을 존경하고, 자주 연락하진 못해도 아주 가끔 안부를 묻고 생존을 확인하는 내 친구들(남녀노소)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 남과 남의 식구들도 자기 식구처럼 아껴주는 분들을 좋아하고, 그분들께 친절합니다.  
자기 식구만 소중히 여기며 남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자에게 차가운 편입니다.
- 밖으로 보이는 형식에 갇든 정성도 예쁘다고 생각하지만 속 내용에 더 관심이 갑니다.
- 꿈꾸기와 글쓰기를 좋아하며 다소 엉뚱하고 파격적인 상상을 즐기지만 행동은 책임질 수 있는 선까지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 신비롭고 아름다운 공간에 머무는 것을 좋아하고, 커피와 차 한 잔을 좋아합니다.
- 갑자기 소원을 빌어야 할 때 “좋은 사람들이 잘되는 세상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 4. 일과 사치!

이와 같은 제 개인적인 취향을 토대로 11년간 다양한 법원 사무를 담당한 법원 생활 중에서 가장 사치스럽게 행복했던 때가 2013년 가족관계등록 일을 하던 때였고, 행복함과 긴장감이 상호 교차했을 때는 2014년 하반기부터 1년간 부산에서 공탁 일을 담당하던 때였습니다. 물론 사치스러운 행복함의 뿌리는 역시 법원사람들이었습니다. 그와 대비하여 전반적으로 가장 힘들게 기억됨과 동시에 일의 내용뿐만 아니라 사람의 구조적인 역학관계, 영장류 연구의 계기가 된 때는 민사 요건사실 연구 이후 민사전자소송 일을 담당하던 때와 작년 여름부터 1년 차 사법보좌관 일을 담당하며 보낸 1년의 기간입니다.

#### 5. 도깨비 정의!

도깨비 김신, 저승사자 김차사 두 캐릭터(신, 사자)는 재미있는 동시에 의미 있었습니다. 드라마는 끝나도 그 속에서 나눴던 대화들, 비록 나와 얼굴을 마주하고 나눈 대화는 아니지만 그 말들이 생생하게 남아 있고 가끔 위로가 되어주는 것도 캐릭터가 가진 힘, 그를 통해 비치는 세계관 덕분일 것입니다.



조개배와 저승사자

- 속도 없이 이런 풍경을 보니 좋습니다. 나는 네가 속도 없이 이런 풍경을 보는 게 좋다. 속도 없이 돌아오니 좋구나.
- 비를 맞고 돌아오는 저녁. 당신의 우산이 되어주는 건 무엇인가요? 부르며 대답하는 목소리. 같은 시간에 같은 것을 봤던 기억. 처음 속도를 맞춰 걷던 순간 같은 것들. 누군가가 생각나시나요? 그래요. 바로 그 사람이예요.
- 너와 함께한 시간이 모두 눈부셨다.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이 좋았다.
- 불행해서요. 이젠 그냥 감기 같아요. 내 불행들이요. 잊을 만하면 찾아오고 때가 되면 걸리거든요.
- 사람들은 모를 텐데. 세상에서 멀어지고 있을 때, 누군가가 세상 쪽으로 등을 떠밀어준다든 거.
- 아가. 더 나은 스승일 순 없었니? 더 빛나는 스승일 수는 없었어?
- 을은 갑의 이용가치가 없어지더라도 효용가치가 없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 갑은 여리다.
- 선왕께선 돌보지 않음으로 돌보았다고 전하라 하셨다. 너의 이복형이었던 선황제에게, 너의 정인이었던 내 누이에게, 너의 고려를 지켰던 나에게 넌 사랑받았다고. 그러니 한 말씀만 내리라고 분노와 염려를 담아 검을 내릴 테니 박중헌을 베어라. 그 한 말씀만..
- 망각 또한 신의 배려입니다. 당신은 기억해야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처음엔 차 한 잔 마시지 못한 이 순간을 후회할 거야. 다음엔 차 한 잔 못 마신 이유를 되짚을 거야. 그리고 깨달을 거야. 그 어떤 순간도 되돌릴 수 없다는 걸. 그리고 넌 이미 지옥에 있다는 걸. 온몸이 매일 조각조각 찢길 거야. 고통에 몸부림치는 매 순간 너는 네가 한 짓을 후회하겠지만 그 고통은 끝나지 않을 거야. 영원히.
- 여기서는 모두 같은 차 한 잔이야. 당신이 가진 시계는 이미 멈췄고, 당신이 간 그 어떤 것도 저 문을 넘지 못해. 이승에선 힘센 사람으로 잘 살았어. 하지만 저 문을 넘는 순간 알게 될 거야. 눈으로 지은 죄, 입으로 지은 죄, 손발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가 얼마나 힘이 센지. 네놈을 지옥의 어느 바닥까지 끌어당기는지.
- 기억을 지운 적 없다. 스스로 기억을 지우는 선택을 했을 뿐. 그럼에도 신의 계획 같기도, 실수 같기도 한가? 신은 그저 질문하는 자일 뿐. 운명은 내가 던지는 질문이다. 답은 그대들이 찾아라.
- 너의 삶은 너의 선택만이 정답이다.
- 인간의 희생은 신이 계산할 수 없는 영역이고 내다볼 수조차 없겠지. 그건 그 순간의 본능이고 온전히 인간의 선택이니까.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선택이니까. 지독히도 못된 신의 질문에 지독히도 슬픈 대답을 했구나.
- 덕화군은 아직 세상에, 주변인에게 관심이 없으시죠? 그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덕화군의 질문들을. 진짜 어른의 질문들을. 세상에 대해, 주변인의 기쁨과 슬픔에 대해.

## 6. 존중과 배려!

10년 차 법원사무관 생활에 이어 1년 차 사법보좌관 생활의 한가운데에서, 2017년 상반기 최고의 작품으로 꼽힌 드라마 도깨비와 윤식당 윤여정 선생님의 인터뷰 기사를 계기로 tvN의 올해의 슬로건 '재미와 의미'에서 이 글을 시작하여 처음과 다음, 개인의 취향, 일과 사치 그리고 '도깨비 정의'까지 떠올려보았습니다. 도깨비와 숫자 9의 연관성에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29살, 저는 39살인 올해 하반기는 의미가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새로운 것에 관심이 많은 개인의 취향과 30대의 짱짱한 체력을 바탕으로 법원에서의 새로운 제도인 호적을 대체하는 가족관계등록 제도, 민사 집중심리재판부 참여관 역할 강화(요건사실 연구, 판결 초고 작성) 제도, 민사전자소송시스템 제도, 성소수자 관련(성전환자 성별 정정, 동성애자 혼인신고, 다양한 가족구성권 등) 제도 등의 시행 초기에 주로 그 현장에 있으면서 생생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특히 전국 단위 문제를 연구할 때는 개인 차원의 문제보다 제도와 시스템 차원에서 신중히 접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실감했습니다.

특히 법원사람들과의 첫 인연을 맺은 2013년, 서울서부지방법원 가족관계등록계 식구들과 함께 일하며 미술심리상담(미술치료, 놀이치료) 기안 과정에서 존경하는 교수님, 부장판사님, 가사조사관님께 자문했고, 성전환자 성별 정정 기획 사건을 통해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식구들과 만났고, 서울 법원 8년 생활을 마무리하고 고향 부산에서 다시 2년간 쉼 없이 돌아가는 법원 일상을 보냈습니다. 이후 2016년 상반기 사법보좌관 연수 기간은 제 일과 제 삶에서 선물 같은 쉼표가 되어주었습니다. 물론 연수 이후 1년간 첫 지원 근무를 하면서 새롭고 다양한 일을 익히며 전쟁 같은 시간을 보냈지만, 작년 상반기에 비축한 힘을 토대로 법원 틀 밖에서의 사회적인 역할에도 조금씩 관심을 가지고 제 일과 제 삶에 작은 변화를 주며 아주 조금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글을 쓰면서 성미 급한 점(신속한 점)보다는 대부분 조용히 집중하며 온 마음을 쏟는 점(정확하려고 노력하는 점)이 장점인 동시에 단점인 제 일과 제 삶을 돌아보며 지금까지 함께 인연을 맺어온 한 분 한 분의 법원 사람들을 떠올려봤습니다. 비록 넘어져 뒹굴더라도 진심으로 살자는 마음으로 살고 있기에, 뭔가 힘들거나 마음이 내키지 않아서 또는 어리고 부족해서 헤아리지 못한 점들이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을 전하고 싶고, 무엇보다 제가 알고 있는 법원 사람들께는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법원 생활보다 앞으로 지낼 법원 생활이 더 길고, 갈수록 고도화되는 전자 실무, 추후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변화까지 상상하면 10년 후에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일하게 될지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국 진심은 통하고, 그 누군가의 소중한 식구인 법원 사람들끼리 존중하고 서로 다른 점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노력이 개인적으로, 조직적으로 다양하게 진행된다면 우리는 법원 일상에서 좋아하는 사람과 일하는 최고의 사치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꿈처럼, 기적처럼! ☐

# 멍때리기

글\_김태균 수원지방법원 판사



## 1. 스피드

아들은 7살입니다. 유치원에서 배웠는지 영어 동화를 제법 외우는데, 좀처럼 차분하지가 않습니다. 피노키오나 신데렐라 따위를 처음부터 끝까지 100미터를 달리듯 쏟아내곤 합니다. 아무리 천천히 하라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저 혼자만 알아들을 수 있는 속도로 끝내고는 ‘나 잘했지?’ 하는 표정으로 칭찬을 재촉합니다. ‘잘했어. 조금 더 하면 더 잘할 수도 있겠는데?’ 하고 육아 책에서 배운 대로 해줍니다. 처음에는 제법 대견했는데, 찬찬히 보니 이 녀석은 아직 힘이 없는 것입니다. 외운 것을 제가 원하는 속도로 즐기면서 재생할 능력이 아직은 없는 것이지요. 천천히 하면 외운 것을 잊어버릴까 두려웠을 겁니다. 또 타인의 인정이 그리워, 칭찬을 받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겠지요. 책을 외우는, 그것도 외국어로 된 책을 외우는 대단한 재주를 보이면서도 녀석은 전혀 즐기지 못하고 틀릴까 봐, 잊어버릴까 봐 불안하기만



했을 겁니다. 사실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개의치 않고 자기만의 빠르기를 유지하려면 힘이 있어야 합니다. 무조건 빨리, 무조건 열심히 하려는 것은 여전히 내공이 부실하다는 증거입니다. 내면의 힘 있는 자만이 쿨할 수 있고 시크할 수 있는 법이지요.

## 2. 긍정성

육아에서든 사회생활에서든 칭찬은 거의 모든 곳에서 여전히 미덕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지만, 정작 칭찬받은 고래는 빨리 죽습니다. 고래는 조련사가 던져주는 먹이를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일 뿐입니다. 고래에게는 그 먹이가 칭찬이지요. 그 칭찬을 위해 지옥 같은 수족관에서 버틴 고래의 수명은 자연 상태에서보다 절반 가량 줄어들게 됩니다. 실상 춤이란 것은 심심함을 견디지 못한 인간이 걸음을 대신하여 새로운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장식이며, 온통 불필요하고 과장된 몸짓이어서, 아무런 생산적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먹이를 위한 고래의 움직임은 춤이 아닙니다. 대신 고래는 분노할 수 있습니다. 고래는 분노하여 울고, 겁에 질려 울기도 합니다. 포획된 고래 대부분은 춤을 추어야만 먹이를 얻는다는 사실에 분노하여 울고 저항합니다. 오히려 먹이를 위해 몸을 움직이는 한 마리의 똑똑한 고래가 비정상일 뿐입니다.



우리는 바쁘게 살며 고래처럼 수많은 칭찬에 길들어 있지만, 정작 그것을 알아차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칭찬은 다양한 모습으로 위장해 있기 때문입니다. 평등한 사회는 우리에게 뭐든 될 수 있고 뭐든 할 수 있다며 무한한 긍정성을 열어놓습니다. 자본주의는 돈이면 뭐든 다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정작 그 돈을 원하는 만큼 가질 수는 없습니다. 인공지능과 정보통신기술은 온갖 귀찮은 일로부터의 해방을 약속하나, 정작 사람들은 직장을 잃었고, 살아남기 위해서 새로운 것들을 항상 배워야만 합니다. ‘너도 할 수 있다’ ‘뭐든 될 수 있다’는 긍정성의 과잉은 무한 경쟁을, 무한히 바쁜 일상을 낳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새로운 기술이 나와도 우리는 여전히 불확실성 속에서 생존을 걱정합니다. 제도와 기술은 진보했는지 몰라도 존재의 불안은 수만 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불안감을 일상의 분주함 속에, 타인의 인정 속에 숨기려고 하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무한히 바쁜 일상 속에서는 사색이 없습니다. 분노할 수도 없고, 반성할 수도 없습니다. 시간이 남아야 자기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서양철학도 그리스 부유층의 여유에서 출발했다고 하지요. 삶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점점 반성과 사색은 추출됩니다. 그렇다고 삶의 속도를 늦출 만한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이제껏 그럴 힘을 기르지도 않았고, 세상은 그럴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소는 종일 일만 하지만 사람은 그럴 수 없습니다. 일만 하는 것은 소일 뿐 사람은 아닙니다.



### 3. 멍 때리기

연초에 병원 신세를 지면서 매일같이 술을 마시던 것을 중단했습니다. 퇴원 후에도 술 생각이 나지 않아 한동안 금주하다가, 이참에 아예 술을 끊기로 했습니다. 술을 끊으면서 저녁 모임이 줄었고, 모임이 줄자 자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이 당겨졌습니다. 당겨진 기상 시간 덕분에 새로운 취미가 생겼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서재 베란다에 앉아서 멍 때리는 것입니다.

멍 때리기는 아무 생각도 않는 것(think nothing)이 아니라, 일어나는 생각을 거리를 두고 그대로 놔두고 지켜보는 것(think blank)입니다. 생각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마음은 결코 침묵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냥 지켜보기만 합니다. 아무런 계산도,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고서요. 정신없는 일상 속에서, 또 원만한 인간관계를 위해서 왜곡되고 억눌렀던 내 감정과 욕망들을 무심히 들여다봅니다.

생산적인 일은 하지 않습니다. 공부나 글 쓰는 일 따위는 하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인터넷도 없습니다. 세상의 속도를 따라가려는 노력에 저항하고 있다고나 할까요. 가끔 책을 보기도 하지만 별로 쓸모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잡다한 지식을 넓혀주지도 않고, 돈을 버는 데 도움을 주지도 않습니다. 종교적 계시를 주거나 명상을 하게 하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순수한 재미만을 위해서 책을 봅니다. 그것마저도 열심히 보지는 않습니다. 커피 한잔 들고서 의자에 앉아, 창밖으로 보이는 어둑어둑한 세상의 모습을 봅니다. 소리도 듣습니다. 형광등이 지직 대는 소리, 촛불이 타는 소리, 새벽 버스가 지나가는 통에 창문이 덜컹대는 소리 그리고 가끔은 새벽의 고요 속에 오로지 내 귓속에서만 울리는 이명을 듣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책 한 줄 보고 커피 한잔 마시고, 또 한 줄 보고 한 10분 멍하게 있습니다. 서두를 것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어차피 아침이 되고 가족들이 일어나면 나 역시 정신없이 바빠질 테니까요. 내가 나만의 페이스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인 셈입니다.

오늘도 여지없이 새벽에 일어나 커피 한잔 들고 의자에 앉아 멍 때립니다. 무심코 눈이 간 책꽂이에서 니체를 빼드립니다. 차라투스트라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친 노동을 좋아하고 빠른 자, 새로운 자, 낯선 자에게 마음이 가는 모든 이들아. 너희는 참을성이 부족하구나. 너희의 부지런함은 자기 자신을 망각하려는 의지이며 도피다. 너희가 삶을 더 믿는다면 순간에 몸을 던지는 일이 줄어들 것이다. 하지만 너희는 내실이 부족해서 기다리지도 못한다. 심지어 계엄령을 부리지도 못하는구나. c



## 판례공보와 종합법률정보

글\_이기리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지난 번 조사심의관 코너에서는 서여정 조사심의관이 판례공보 이외에 법원도서관에서 편찬, 발간하는 자료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읽어보신 분들은 상당히 여러 가지 자료가 발간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법원도서관에서 발간하는 자료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판례공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원도서관은 ‘판례·법령·문헌·사료 등 정보를 조사·수집·편찬하고 이를 관리·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법원조직법 제22조), 이러한 정보 중 ‘판례’는 법원도서관을 통해서 1차적으로 편찬되고 있고, ‘판례공보’가 판례를 편찬하는 가장 기본적인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판례공보는 왜 편찬하는 것일까요?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선례 구속의 원칙(Stare Decisis) 때문에 판례가 법원(法源)이 되는 관계로 법률과 동일한 정도로 공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선례가 될 만한 판례의 편찬은 당연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판례가 곧바로 법원(法源)이 되지 않는 대륙법계 국가에서도 판례는 편찬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판례가 편찬될 필요가 있다는 것에 관하여 의문이 제기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국민의 알권리가 근거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판례공보는 법원도서관의 조사심의관실과 조사위원실을 중심으로 편찬되고 있습

니다.<sup>1)</sup>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후 2주 이내에, 대법원 재판연구관실에서 조사심의관실로 '판례공보 자료'와 함께 선고된 모든 판결문(심리불속행 기각된 판결문 등은 제외)을 보냅니다. '판례공보 자료'에는 판례공보 편찬·발간에 필요한 자료를 적도록 되어 있는데(법원도서관규칙 제11조의2 제2항), 가장 중요한 것은 판결의 '등급' 선별표시입니다.



판결의 등급은 크게 A급, C급, D+급, D급, X급이 있습니다(B급은 왜 없느냐고요? 아무도 아는 분이 없다고 하시네요. 혹시 아시는 분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급은 전원합의체 및 대법원판례집에 실을 만한 매우 중요한 판결, C급은 선례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례공보에 실을 만한 중요한 판결, D+급은 매우 중요한 법리이기는 하나 약 3년 정도 이전에 이미 기존 판시가 있었던 판결, D급은 판시 법리가 과거에 수차례 반복된 것으로 3년 이내에 공보에 동일 판시가 수록된 적이 있는 판결 등입니다. A급과 C급으로 분류된 판결은 판례공보에 신고, D+급은 종합법률정보에 외부 공개 대상으로 등록되고, D급은 내부용으로 종합법률정보에 등록됩니다. X급은 참조할 만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종합법률정보에 등록되지 않습니다. 재판연구관실의 등급 선별 표시를 최대한 존중하여 조사심의관실에서 등급분류를 확정하는데, 동일 판시의 판결이 근접한 시기에 선고된 경우 등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연구관실과 협의를 하여 등급을 조정하기도 합니다. 선별표시가 없는 상태로 온 경우에는 조사심의관실에서 등급을 분류합니다.

판례공보에 실기로 결정된 판결에 대하여는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를 작성하고, 판례공보 형식으로 자료를 전환합니다. 이를 기초로 몇 차례의 교정 작업 후 조사심의관들이 비실명 처리 작업을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 형사소송법 제59조의3에 따른 판결서 열람<sup>2)</sup>을 위해 법원행정처 재판사무국의 '판결서 비실명화 및 전자소송사건 스캔업무지원 사업소'에서 비실명 처리 작업을 하고 있으나, 이는 모든 확정 민사·형사 사건의 판결서를 대상으로 관련 예규에 따라 비실명 처리 대상을 'A', 'B' 등으로 변환하여 표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판례공보 등에 대하여는 편찬물인 성격을 고려하여 법원도서관 내규에 따라 '소외인' 등으로 표시하는 방식으로 비실명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고, 판례공보 발간 일정의 촉박함 등으로 인하여 조사심의관들이 비실명 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비실명 처리 및 상호 확인이

1) 조사심의관은 그 외에도 도서관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도서관 업무에 관한 계획의 입안, 연구·조사, 심사·평가, 업무의 종합조정과 도서관장이 지정한 업무를 분장하고 있습니다(법원도서관규칙 제3조의2).

2) 저는 법원도서관에 와서 관련 업무를 하면서 정확히 알게 되었는데, 현재 확정된 모든 민사·행정·특허·선거특별·형사 사건의 판결서에 대하여 인터넷을 통한 열람이 일정한 조건 아래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재 확정되지 않은 판결서도 열람 대상으로 추가하고, 임의어 검색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의안번호 2005780호, 2005782호). 임의어 검색이 가능한 형태로 모든 판결서를 공개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파급효과가 있을 수 있는 바, 판결서를 작성하는 법관들께서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는 주제로 생각합니다.

완료된 원고에 대하여 도서관장님이 결재를 하시면, 매월 1일, 15일에 코트넷 '지식광장'의 '최신판례·법령' 중 '판례공보·속보' 아래 '대법원 판례공보' 게시판에 판례공보 전체 파일과 판시사항·판결요지만 담은 요약본 파일이 게시되고, 동시에 인쇄에 들어가 며칠 후 약 3,300부의 판례공보가 배부되어 받아보시게 됩니다(저희는 이미 다음 호 판례공보 작업을 한창 하고 있을 때입니다. 매월 10일에 발간되는 각급법원 판결공보도 비슷한 절차를 거쳐 발간됩니다). 종합법률정보에 등록되기 위해서는 외주업체를 통한 xml 형식 변환 작업이 필요하므로, 판례공보에 실린 판결은 게시 며칠 후부터 종합법률정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종합법률정보에 D+급으로 등록하기로 결정된 판결은 판례공보에 실리는 판결과 거의 동일한 작업을 거쳐 등록되고(판결요지만 작성하지 않습니다), D급으로 분류된 판결은 참조조문만 작성하여 종합법률정보에 등록됩니다.

종합법률정보에 등록된 판결이 판례공보에 실린 것인지, D+급인지, D급인지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종합법률정보에서 어떤 판결을 보았을 때 상단에 '[공2017상, 1268]'과 같은 표시가 있으면 판례공보에 실린 판결입니다(그 앞에 '<...>'와 같은 사건의 설명이 포함된 경우는 때 판례공보마다 민사·특별·형사 분야별로 한 건씩 선정되는 '화제의 판결'로 선정된 경우입니다).

####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86901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임차건을 화재로 인하여 임대차 목적이 아닌 부분까지 불탄 경우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과 손해배상의 범위> 문제된 사건 [공2017상, 1268]

#### 대법원 2017. 2. 17. 자 2016마1324 결정

[개인회생] [미간행]

##### 【판시사항】

- ≡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6호에서 정한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 및 같은 조 제7호에서 정한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하기 위한 요건
-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변제계획에서 정하여야 하는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변제에 관한 사항 중 변제기간이 전체 변제기간 60개월의 1/2 이내가 되어야 전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참조조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6호, 제7호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1항 제2호

##### ≡ 【참조판례】

[1] 대법원 2011. 6. 10.자 2011마201 결정(공2011하, 1389)

대법원 2013. 3. 15.자 2013마101 결정



만면 왼쪽 아래와 같이 ‘[미간행]’이라고 표시된 경우는 D+급 또는 D급일 수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D급의 경우에는 참조조문만 작성하므로 아래와 같이 판시사항, 참조판례까지 있는 경우에는 D+급임을 알 수 있습니다.

종합법률정보에서 검색하면서 판례공보에 실린 판결만 대상으로 검색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래에서 보시는 것처럼 검색범위 중 ‘판례등급’에서 ‘간행판결’을 선택하시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보신 것처럼 종합법률정보와 판례공보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모든 판결문을 편찬하려는 것이 아니라, 선례적 가치가 있어 알릴 필요가 있는 판결들을 선정하여 참고자료와 함께 좀더 쉽게 접근가능하도록 제공하려는 도구들입니다. 종합법률정보가 없었던 시절(종합법률정보 서비스가 개시된 것이 1998년 7월이므로 내년이면 20주년이 되네요)에는 판례공보가 판례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도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에는 판례공보를 보지 않는 법조인은 있어도, 종합법률정보를 이용하지 않는 법조인이 과연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판례공보가 없어지는 일이 당분간은 없겠지만, 정보를 관리하고 접근하는 방법이 디지털화된 도구 중심으로 옮겨간 것은 이미 오래되었고 앞으로 더 심화될 것이므로, 종합법률정보 서비스도 이른바 제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을 수용하면서 계속 진화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되면 이용하시는 분들의 업무 효율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c





# 어린이 소식지

2017 AUGUST |

<http://we.scourt.go.kr/kids/board/BoardListAction.work?gubun=951>

| NO. 03

## 01 서울남부지방법원 406호에서! (국민참여재판 관람 후기)



서울남부지방법원 406호에서 7월 17일 오전 11시부터 국민참여재판이 열렸다.

오늘 관람한 재판은 피고인이 2017년 2월 출소하였으나 4월에 또다시 동일 범죄 절도(소매치기)를 하여 범죄 사실은 이미 인정하였고 그에 따른 양형에 관해 다루는 재판이었다. 양형은 법원이 형사재판 결과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해 그 형벌의 정도 또는 형벌의 양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검사 측에서는 징역 4년을 구형하였으나 변호인은 여러 사유를 내세우며 감형해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청각장애인이어서 수화로 통역해주시는 통역사분이 재판하는 동안 동시통역을 해주셨다.

재판이 진행될수록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지갑을 훔쳐 현금을 가져가는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물론 알겠지만 피고인이 처한 상황(4살 때부터 청각장애인으로 살면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해 글도 잘 못 읽고 수화도 정확히 잘 못하여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고 그로 인해 생활이 힘들어져 자꾸만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상황)들이 안타까

웠다. 훔친 돈으로 무엇을 했냐고 판사님이 질문하자 피고인은 삼푸를 사고 먹을 것을 사고 옷을 샀다고 했다. 나는 재판을 관람하며 나의 감정을 배제하고 사건만으로 피고인의 죄를 판단하기가 참 어려웠다. 법정 안에 계신 분들이 감정적으로 재판하지 않고 법에 따라 재판을 하시는 모습이 매우 존경스러웠다.

판결 선고를 기다리며 수화 통역사분과 대화를 하게 되었다. 나는 청각장애인이 죄를 지어 재판에 나오는 경우가 많는지 궁금하여 물어보았다. 그러자 수화 통역사분께서는 청각장애인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라고 하셨다. 물론 정상인보다 청각장애인의 수가 적어 그에 비례하면 횟수가 적지만 그래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을 하면 이렇게 통역사의 도움을 받아 재판을 받는다고 하셨다.

오전 11시에 시작한 재판은 오후 4시가 좀 지나서까지 진행되었고, 배심원들의 회의를 거쳐 5시 30분에 판결 선고가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 내내 판사님께서 피고인이 재판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잘 못 이해한 듯 싶을 땐 통역사분께 피고인이 이해할 때까지 통역을 해달라고 부탁하며 기다려주셨다. 또 배심원분들도 재판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 중간중간 확인하시며 설명해주시고, 회의에 들어가기 전 주의사항을 천천히 알려주셨다.

왠지 판사님은 무섭고 엄할 것 같았는데 무척 친절하셨고 배려가 많으셨다. 판결 선고 시에도 판사님께서 초등학생 견학을 배려해주시며 변호인, 피고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배심원석에 앉아 판결문을 선고하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셨다. 배심원석에 앉아서 판결 선고를 들을 때 무척 떨렸던 것 같다. 판사님 덕분에 더욱 소중한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해솔초 6학년  
안수빈

## 02

## 조선시대에 왜 김영란법?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일명 김영란법은 뇌물 수수를 방지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정된 '청탁 금지법'이다.

그런데 조선시대에도 벼슬의 청탁을 금하는 법이 있었다고 한다. 조선시대의 김영란법, 바로 분경방지법이다. 달릴 분(奔)과 다룰 경(競)으로 이루어진 '분경'은 공직자의 꿈무니를 쫓아다니는 모습을 표현한 단어다. 부정 청탁이나 금품 제공을 목적으로 공직자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그렇게

표현했던 것이다. 조선시대 최고 법전인 <경국대전>에 바로 이 분경을 금지하는 조항이 나온다. "분경하는 자는 곤장 100대와 유배형 3000리에 처한다"는 조항이 그것이며, 사형에 버금가는 중형이었다. 이와 비교되는 오늘날의 김영란법은 정확하게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뜻한다.

김영란법은 부정 청탁 행위 금지의 주체를 '누구든지'라고 표현하고 있다. 대한민국 법령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그 어떤 누구라도 부정 청탁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국민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다. 또 선진국은 국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조선시대가 아닌 지금도 우리는 분경(奔競)을 하지 말아야 한다.



세검정초 5학년  
신서영

## 03

## 고소? 고발? 신고? 차이점을 아시나요?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듣는 고소, 고발, 신고는 과연 같은 말일까?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등 고소권이 있는 사람이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면서 범인을 법적으로 처벌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국가를 상대로 범죄자를 처벌해달라는 적극적인 요구다. 고발이란 범죄의 피해자나 고소권자가 아닌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

을 처벌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누구나 범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고발을 할 수 있으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가족을 고발하지는 못한다.

신고는 수사기관에 단순히 해당 사실을 보고하거나 알리는 것을 말한다. 고소와 다른 점은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고발과 다른 점은 범인을 처벌해달라는 요구가 없다는 것이다. 즉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라고 알리는 것이다. (경찰청 112, 검찰청 1301, 폭력신고 117)

본인이 겪은 일에 대해 상대를 고소할 수 있고, 제3자는 이 경우 고발을 할 수 있으며, 다른 이들은 시끄러운 일이 일어났다고 신고할 수 있다.



경복초 5학년  
이지성

# 후견 업무의 전문성으로 신뢰와 안심을 전합니다!

서울가정법원 후견센터 개소



법정대리인이 없는 미성년자가 성인이 될 때까지 또는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없는 사람이 타인의 도움없이 안정된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때까지 법에서 보호하는 제도가 후견제도이다. 다소 생소한 제도지만 후견 업무는 해마다 증가하는 상황이다.

이를 더욱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후견인들과 유기적인 업무 공조를 하기 위해

최근 서울가정법원에서 후견센터를 개소해 관심을 받고 있다.

글\_박주광 · 사진\_안정진

## 신뢰와 안심으로 후견 업무의 전문화를 추구하는 후견센터

지난 7월 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가정법원 1층 융선당에서 후견 업무의 전문화를 추구하는 ‘후견센터’ 개소식이 열렸다. 이날 개소식에서는 성백현 서울가정법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 김호철 법무부 법무실장 등 내·외빈의 축사가 이어졌다.

성백현 서울가정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후견 제도의 업무를 효과적이고 안정되게 실행하기 위해 후견센터를 별도의 조직으로 꾸렸으며 피후견인, 후견인, 법원 후견사무 담당자 간의 신뢰를 통한 유기적인 업무 공조로 피후견인들에게 안심을 전달할 것”이라며 “보다 나은 후견 제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심점 역할로 발전할 수 있도록 후견센터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축사에서 “정신장애인, 발달장애인, 미성년자 등은 물론 치매나 고령으로 신체와 재산을 보호할 능력이 현저히 낮은 분들에게까지 후견 업무를 확대·강화하는 일환으로 후견센터가 설립돼 매우 기쁘다”며 “피후견인들의 인권, 생명, 재산까지 보호하기 위한 후견센터의 앞으로의 활약을 기대하면서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가정법원에서도 후견센터가 설립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김호철 법무부 법무실장은 “고령화 사회인 지금 후견 제도와 후견 업무의 필요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후견 제도와 업무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후견센터가 더욱 발전하길 기대한다”며 축사를 마쳤다. 이어 서울가정법원 후견센터 설립 취지와 운영방안 그리고 후견인들의 후견 업무와 후견센터의 기능 등을 발표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먼저 김성우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가 ‘후견센터의 설립과 역할’을, 전현덕 서울가정법원 조사관이 ‘후견 업무의 절차와 후견센터의 운영’, 마지막으로 송인규 법무법인 정원 변호사가 ‘후견 업무의 실제와 후견센터의 기능’을 주제로 발표했다.

융선당에서 개소식을 마친 후, 참석한 모든 귀빈이 가정법원 8층에 위치한 ‘후견센터’를 방문하는 시간을 가지고 개소식을 성료했다. ㉔

## MINI Interview

### “후견 관련 토털 서비스를 갖춘 후견센터로 거듭나겠다”

김성우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후견센터는 후견 제도의 이념을 실현하고, 피후견인을 보호하며, 후견 관련 토털 서비스로 확대할 것입니다. 후견 업무를 유기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조직을 구축하고, 후견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등 장애인, 어르신들, 치매 환자 등의 인권과 생명, 재산까지 보호하는 후견센터로 발전을 거듭하겠습니다.



### “신뢰를 갖춘 전문적이고 유기적인 후견 업무를 추진하겠다”

전현덕 서울가정법원 조사관

피후견인, 후견인과 실질적인 접촉이 잦은 후견 업무가 보다 전문적이고 유기적으로 실행될 것입니다. 후견 제도가 생겨나고 해마다 후견 업무가 증가하는 추세로, 이제 후견 업무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후견 업무 관련 토털 서비스로 확대·강화해 믿고 의뢰할 수 있는 후견센터가 되겠습니다.

### “후견센터 개소를 다양한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인규 법무법인 정원 변호사



현장에서 이뤄지는 후견 업무에서는 돌발·응급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후견인들이 겪는 애로사항이 적지 않습니다. 이번 후견센터 개소를 통해 피후견인, 그 가족, 후견인 사이에 공존하는 다양한 문제점을 공론을 통해 하나하나 개선해나가는 후견 제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슈트가이,  
위트 있는  
스타일로

변신을  
피하다

박재홍

서울중앙지방법원 실무관

법원 사람들의 새로운 스타일 도전과 삶의 이야기를 담은 코너로, 헤어부터 의상까지 스타일 변신의 기회를 드립니다.



박재홍 실무관은 평소 진중한 태입으로 정장을 입고 온화한 표정을 지을 때가 많다. 심지어 업무 중이 아닐 때에도 무난한 옷차림에 같은 표정이라고 하니, 위트가이와는 거리가 멀다. 하지만 이날 스타일링 Q를 만난 그는 편안하면서도 깔끔한 옷차림에 장난스러운 콘셉트로 사진을 찍으며 다른 사람이 되어보는 경험을 했다. 때로는 차고에서 혼자 장난치는 장난꾸러기 아이처럼, 때로는 옥상에서 바람을 느끼는 밝고 순수한 남자로 팔색조 같은 매력을 선보인 박재홍 실무관을 만나보자. 글\_강나은·사진\_이성원



Style  
Change

### 오랫동안 꿈꾸던 행복을 만끽하다

박재홍 실무관은 민사소액과에서 일한 지 5개월 차. 이제는 갓 들어왔을 때의 신입 티를 벗고 일을 알아가는 중이다. 민사소액과는 소송물가액 3,000만 원 이하의 민사소송을 처리하는 부서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이다 보니 사건이 많은 편이다. 또한 짧은 시간 내에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아 판결이 더 정확하게 내려지도록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그의 역할이 크다.

“다른 부서에서 일해본 적은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민사소액과는 사건은 많되 사건당 종결되는 시간이 비교적 짧다는 장단점이 있어요. 많은 사건에 대해 원고 측과 피고 측에서 제출한 문건들을 점검해야 하기 때문에 힘들 때

도 있지만 재판을 무사히 마쳤을 때는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어요.”

또한 그는 민원인들의 질문에 답변을 해주고 나서 듣는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한마디에 ‘이 자리에서 내 역할을 해냈다’는 보람을 느끼기도 한다. 그가 이 자리까지 오기 전 매일 꿈꿔왔던 생활이다.

지방행정직 공무원이신 아버지가 그에게 법원직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추천한 후 그는 3년간의 수험생활을 견뎠다.

“준비를 처음 시작할 때는 친구들도 모두 취업준비생이었기 때문에 크게 힘들지 않았는데,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직장인이 된 친구들을 보며 부럽기도 하고 지금까지 아무



것도 못 했다는 기분이 들 때 심리적으로 많이 부담 되고 힘이 들기도 했어요.”

심지어 작년에는 마음속으로 ‘올해 시험에 합격하지 못 하면 다른 직업을 찾아야겠다’는 생각까지 했다고. 다행히도 그의 간절함과 노력이 결실을 맺어 그는 작년에 합격해 올해 발령을 받았다. 그에게 꿈꾸던 만큼 법원 생활이 만족스럽냐고 물었더니 단번에 “그럼요”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물론 민원인들을 대하면서 지칠 때도 있긴 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법원이 좋은 직장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어요.”

### 무난한 무채색을 띤던 그에게 색을 입히다

출근하지 않을 때의 평소 옷차림을 물었더니 그는 깔끔한 티셔츠에 청바지를 주로 입는다고 말했다. 무난한 옷차림

이 가장 편하다는 그는 스스로 화려한 스타일은 부담스럽다고 말을 이었다. 게다가 요즘에는 마음에 드는 옷을 봐도 쉽게 도전할 수 없다고 한다.

“워낙 마른 체형의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요즘 옷은 다 작게 나와서 입어보기 부담스러울 때가 많아요. 한번 입어보고 싶다가도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무난하게 왁스로 올린 헤어스타일에 이렇게 무난한 옷차림을 하고 다녀서인지 주변에서는 그를 서른이라는 나이 보다 많게 본다.

그는 스타일링과 평소 성격은 보수적이지만, 반면에 취미는 활동적이다. 사이클로 국토종주를 할 정도라고 하니, 체력도 체력이지만 용기도 남다르다.

“2~3년 전 수험생 시기에 체력관리 때문에 사이클을 시작했는데 지금은 취미로 타고 있어요. ‘내가 이만큼 왔구나’ 하는 성취감이 사이클의 가장 큰 매력이지요. 또 사이클을 타면서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만나게 되는 그림 같은 경치도 좋아요.”

그가 지금까지 사이클을 타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은 충주댐으로, 비 오는 날 가슴이 탁 트이도록 넓고 푸르렀던 풍경을 떠올리면 기분이 절로 상쾌해질 정도라고 한다. 요즘 그는 사이클에 이어 수영도 배우고 있다. 비록 수영 강습에 맞춰 시간 내기가 어렵지만 생전 처음 배우는 수영이 어렵다기보다는 재미있게 느껴진다고.

이날 ‘스타일링 Q’를 마친 소감도 수영과 비슷했다. 그는 낯설긴 하지만 기분 좋고 재미있는 경험이었다. 오늘 입어본 ‘올 화이트 룩’은 올여름이 가기 전 도전해 보고 싶은 스타일이라고 했다.

“그동안 흰색 옷이라고 하면 때 탈까 봐 잘못 입었는데, 생각보다 깔끔하고 예쁘네요. 아무래도 평소에 이렇게 특별한 스타일링을 하고 다니지 않기도 하고 익살스러운 표정으로 사진을 찍어본 적이 없어서 어색하긴 했지만 돌이켜 생각하면 추억이 많이 남을 것 같아요.”

선한 미소로 웃는 그의 얼굴과 맞춘 듯이 잘 어울리는 새하얀 옷은 보기만 해도 이 더운 여름날을 시원하게 만들어 주는 듯했다. ☺

○○

다행히도 그의 간절함과 노력이  
결실을 맺어 그는 작년에 합격해 올해  
발령을 받았다. 그에게 꿈꾸던 만큼  
법원 생활이 만족스럽냐고 물었더니 단번에  
“그럼요”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



## 박재홍님을 위한 스타일링 TIP

### Fashion



첫 번째, 단디한 피치 컬러 리넨 셔츠와 화이트 컬러 반바지는 편안해 보이면서도 화사한데요. 편안하면서도 시원해 보이는 리넨 셔츠 안에 화이트 컬러 이너웨어를 레이어드하면 더욱 캐주얼한 느낌이 납니다. 여기에 선글라스만 더해도 여름 휴양지 패션으로 충분하죠?

두 번째, 이미지가 뚜렷해서 오히려 다소 딱딱해 보일 수 있는 모델을 위해 캐주얼 룩을 준비했습니다. 화사한 핑크 컬러의 반팔 티와 블루 컬러의 체크남방으로 어려 보이게 하고, 청바지와 어울리는 시원해 보이는 샌들을 매치해 여름에 입기 좋은 스타일을 완성했습니다.

세 번째, 차분한 느낌의 블랙 & 화이트 콘셉트는 남자다운 면서도 스타일리시한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가볍게 입기 좋은 카디건이지만 독특한 패턴으로 패셔너블해 보이며, 여기에 블랙 슬랙스를 더해 전체적으로 날씬해 보이는 효과를 주었습니다.

네 번째, 깔끔한 올 화이트 룩에 포인트 컬러로 블루 재킷을 더했습니다. 센스 있는 포인트 컬러 코디는 안정감 있으면서 과해 보이지 않아 어디에서도 입기 좋습니다.

### Hair & Make up



모델의 피부가 워낙 좋아서 톤업 정도만 해도 얼굴이 살아나는데요. 처진 눈썹을 다듬어서 그려주어 더욱 이목구비가 뚜렷해 보이도록 했습니다. 헤어는 워낙 길이가 짧아 다양한 연출은 어렵지만 위로 올려 스타일링해 시원하면서도 얼굴이 가름해 보이는 효과를 냈습니다.

### tip

운동을 꾸준히 하는 박재홍님은 어깨가 넓어 어떤 옷을 입어도 태가 남더라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완전히 캐주얼한 옷보다는 깔끔한 단디 룩이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답답해 보이지 않으면서도 편안하게 연출 가능한 리넨 셔츠를 입되, 피부 톤에 맞는 웜 톤 계열의 컬러들을 고른다면 무난하게 모두 잘 어울리겠어요!

- 장빛나 스타일리스트 -



## 그가 기부를 멈출 수 없는 이유

가수 박 상 민

하루 평균 3~5개. 여느 인기 아이돌 못지않은 스케줄을 소화하는 24년 차 가수가 있다. 검은 선글라스와 모자, 가수 박상민이다. '해바라기' '중년' '하나의 사랑' 등 셀 수 없이 많은 히트곡은 그의 살인적인 스케줄에도 고개가 끄덕여지는 이유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일정 중 그가 가수로서 대가를 받는 경우는 절반이 채 안 된다. 그의 지독한 기부 철학 때문이다.

글\_이충진 · 사진\_이충진, 연합뉴스

### Q. 가수 박상민에게 기부란 무엇인가.

내 성격이다. 부모님을 닮아서 마음이 약하고 여리다. 1995년쯤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평택에 공연을 하러 간 적이 있는데 입구에 '평택의 아들 박상민'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고향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받은 돈을 전부 지역 독거노인과 결식아동을 위해 기부했다. 그게 이렇다 할 첫 기부였던 것 같다. 이후 소아암을 앓는 아이들의 수술비 등을 지원하는 일을 꾸준히 했는데 한 번은 그중 한 아이가 커서 인사를 하러 왔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터져나왔다. 그때 그 기분을 잊지 못해 기부를 계속하고 있다.

### Q. 사랑의열매 등 15개 단체의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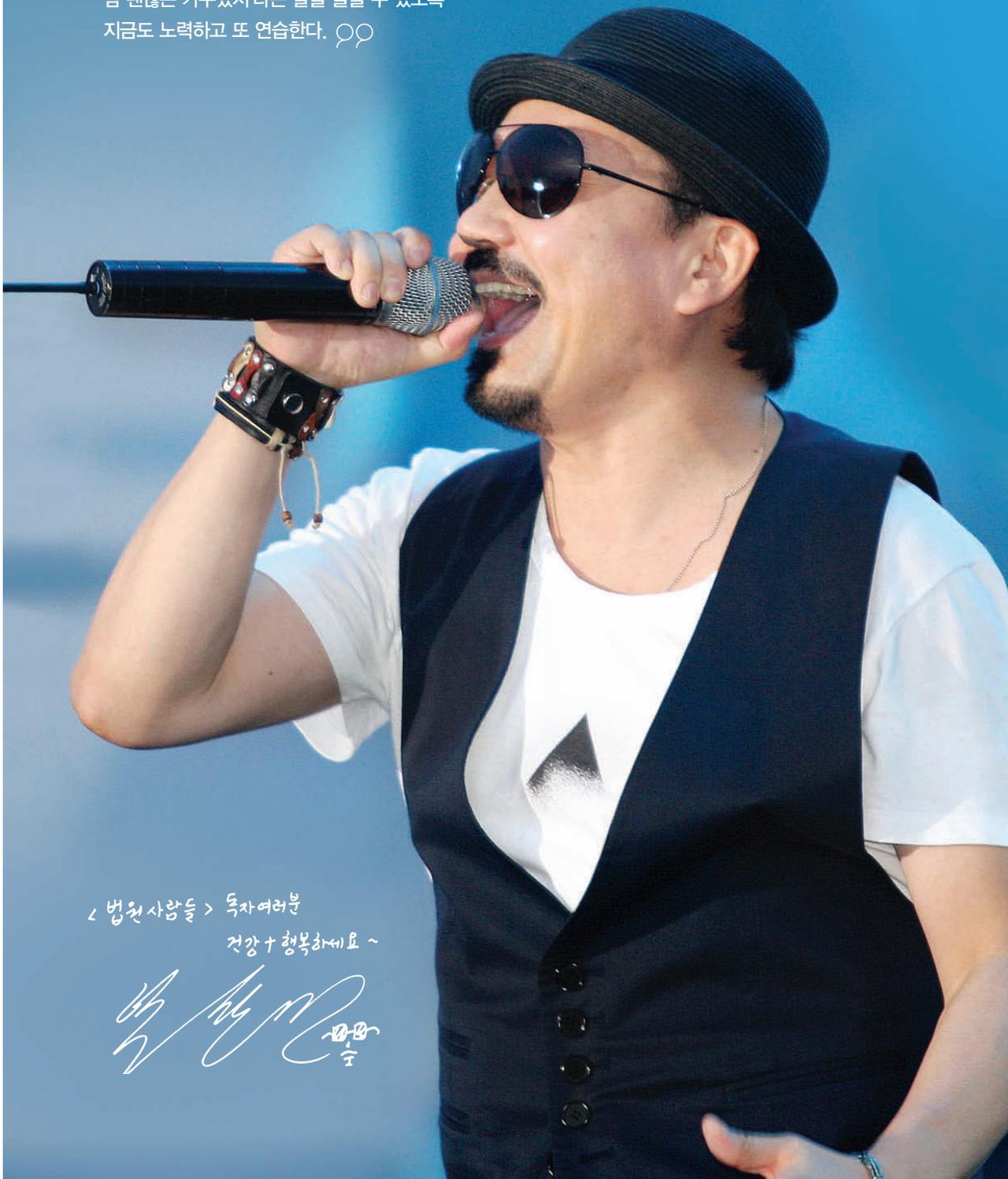
사실 대부분이 대가를 받는 게 아니어서 제 얼굴을 쓰는 곳은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중 '사랑의 달팽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청각장애 아이들의 인공와우 수술을 돕는 곳이다. 인공와우가 개당 500만 원 정도다. 요청이 있을 때마다 단 한 번도 빠진 적 없이 기부하고 있는데 내가 돈이 부족할 때도 많다. 그럴 때는 주변 연예인들에게 강요 아닌 강요도 하고 있다(웃음). 수술 후 말을 거의 못 하던 아이들이 '아저씨 고맙습니다' 할 때는 정말 심장이 떨리는 느낌을 받는다. 기부를 멈출 수 없는 이유다.

### Q. 이제 '원로' 가수다.

나는 '괜찮은 가수'라는 말을 들을 때 참 기분이 좋더라. '나로 인해 조금이라도 기쁨을 느낄 수 있다면' 하는 생각. 그게 너무 짜릿하다. 결혼식 축하를 요청받는 일이 많은데 사실 이런 건 진심으로 축하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수가 아니라 가족이 되는 것 말이다. 이런 생각 때문인지, 솔직히 대가 없이 공연할 때가 많다. 그럴 때는 오히려 돈을 엄청 많이 받은 것처럼 행동한다. 도움이 될 수 있을 까하는 생각에 참여한 것이고, 그래야 진심이 전해진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성격이 그렇다.

〇〇

누군가가 이제 가수를 그만둬라 할 때까지  
 열심히 할 생각이다. 나중에 '박상민 그 친구  
 참 괜찮은 가수였지'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지금도 노력하고 또 연습한다. 〇〇



< 법원 사람들 > 독자여러분  
 건강 + 행복하세요 ~

박상민  박상민



○○

법이 없으면 말 그대로 무법천지가 될 것이다.  
직업상 외국 공연을 많이 하는데 갈 때마다 느끼는  
점은 우리나라의 법이 충분히 엄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많다. ○○



**Q. 딸이 연예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이제 다시는 안 내보낼 생각이다. 그제 15살, 13살 아이답게 잘 컸으면 하는 바람이다. 댓글에 욕이 너무 많더라. 사실 우리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상처를 너무 심하게 받았다. 이야깃거리를 만들기 위해 편집이 너무 자극적이었다는 생각이다. 물론 꿈이 있다면 그것이 뭐든 지지할 생각이다. 하지만 소질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의 얘기다. 모든 부모가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공부만 강요하지는 않는다.

**Q. 딸에게 조언을 한다면.**

실력 위주라는 말,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것 안다. 하지만 음악의 길을 걸겠다면 어쩔 수 없이 실력이 먼저다. 어느 직업이든 간에 마찬가지다. 피아노, 미디, 작사, 작곡 등 모든 면에서 인정받을 수 있어야 비로소 가수가 될 수 있는 세상이다. 지드래곤이나 지코 같은 아이들이 참 멋있

더라. 음악을 한다면 이틀처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때는 그저 노래만 잘하면 됐다. 지금 생각하면 조금 후회된다(웃음).

**Q. 가수로서, 아버지로서 삶의 목표는 무엇인가.**

분명히 내가 1인자는 아니다. 하지만 여러 명을 뽑는 곳이 있을 때 많은 곳에서 나를 찾아주더라. 그게 정말 감사하다. 누군가가 이제 가수를 그만두라고 할 때까지 열심히 할 생각이다. 나중에 '박상민 그 친구 참 괜찮은 가수였지'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지금도 노력하고 또 연습한다. 아버지로서의 삶도 마찬가지로.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지만, 그 전에 내가 좋은 아들이 되어야 한다. 꿈이 하나 있는데, 바로 혼자 되신 어머니와 누님이 옹기종기 모여 사는 것이다. 아들로서의 도리다.

**Q. 격투기 선수들을 남 모르게 지원해온 것이 얼마 전 언론에 의해 드러났다.**

이제 격투기는 내 인생의 한 40%는 되는 것 같다. 7년쯤 전부터 격투기 선수들을 조금씩 지원하던 것이 이렇게 커졌다. 물론 돈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누구나 꼭 필요한 곳이 있다. 그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였다. 로드FC의 부대표를 맡게 된 것도 대회를 조금이라도 더 수월하게 많이 열었으면 하는 마음에서였다. 그러면 많은 선수가 터전을 갖게 된다. 그게 바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 비용들은 전부 사비로 낸다.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사실 격투기뿐 아니라 모든 스포츠를 좋아한다. 다만 그중 설움받는 비인기종목의 선수들을 조금 더 지원할 수 있었으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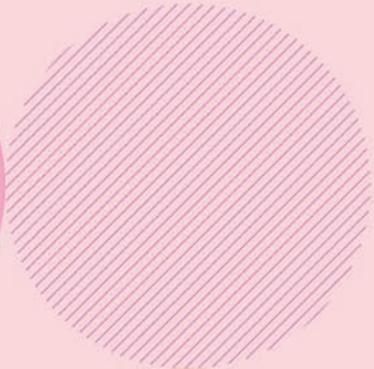
**Q. 몇 해 전 판사 앞에 선 적이 있다.**

'가짜 박상민'과 법적 싸움을 할 때였는데 참 기가 막히더라. 정말 '미안하다' 한마디면 용서하고 넘어갈 수 있었다. 하지만 끝까지 발뺌하는 그를 보고 참을 수가 없었다. 판사님이 결국 그 '가짜 박상민'에게 벌금형을 내려주셨다. 기뻐다. 하지만 민사 청구는 하지 않았다. 오죽하면 그랬겠나 하는 생각이 또 들더라. 그러면서 또 든 생각은, 판사님들이 정말 고생이 많으신 것 같더라. 얼마나 많은 갈등을 겪으며 살고 계시는가. 하지만 그분들은 최종 판결자시다. 늘 후회 없는 판결을 하신다고 믿고 지지하고 있다.

**Q. 박상민에게 법이란 무엇인가.**

법이 없으면 말 그대로 무법천지가 될 것이다. 직업상 외국 공연을 많이 하는데 갈 때마다 느끼는 점은 우리나라의 법이 충분히 엄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많다. 마음 놓고 밤에 다닐 수 있고 또 즐길 수 있다. 이 환경, 모두 법 덕분이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다. 나쁜 사람에겐 더 강하게 처벌하고, 억울한 사람에겐 조금 더 기회를 줬으면 한다. ☐





## 통증의 왕, 대상포진 치료에도 골든타임이 있다!



## HERPES ZOSTER

8월 무더위와 함께 조심해야 할 질병이 대상포진이다. 감기나 근육통처럼 몸이 으스스하고 쿡쿡 쑤시면서 붉은 반점이 생기면 대상포진부터 의심해보자. 대상포진은 더위가 절정에 달하는 8월에 가장 많이 발병한다. 전문가들은 대상포진 치료에도 72시간의 골든타임이 있으므로 신속한 치료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글\_편집부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2월 환자수는 2012~15년 4년간 환자 집계 기준

### 수두 바이러스의 진격, 대상포진

대상포진은 어릴 때 앓았던 수두 바이러스가 몸속에 잠복해 있다가 신체 면역력이 저하됐을 때 재활성화되어 나타나는 질환이다. 주로 노인들에게 발병하지만, 최근에는 스트레스를 받는 직장인이 많아지면서 발병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 수두를 한번 앓은 사람은 앓지 않은 사람보다 성인이 된 후 대상포진에 걸릴 확률이 그만큼 높다. 대상포진은 감기 몸살과 비슷한 증상을 동반하며 붉은 반점과 수포가 띠 모양으로 생긴다. 무엇보다도 참을 수 없는 통증으로 고통스럽다.

대상포진은 또 계절을 잘 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최근 5년간(2012~2016년) 대상포진 진료 환자 자료를 살펴보면, 대상포진 환자 수는 5월에 급증하기 시작해 8월에 최고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름철 덥고 습한 날씨와 냉방기 가동으로 인한 실내·외의 큰 온도 차 등에 의한 면역력 저하가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인다.

일단 대상포진으로 의심되면 바로 병원에서 정확한 검진을 받아야 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진단 시기가 늦어질수록 치료가 어려워질 뿐 아니라 신경 손상 및 질환으로 인한 합병증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 따라서 대상포진 치료의 골든타임인 72시간 내에 정확한 진단을 통해 신속히 치료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초기 피부 발진이 일어난

때로부터 3일 이내에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하면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

### 치료가 끝나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

대상포진은 증상이 좋아졌다고 안심하면 절대 안 된다. 치료가 끝나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바이러스가 몸에서 사라지지 않고 계속 존재하기에 면역력이 떨어지면 또 다시 발병할 수 있다. 대상포진으로 인한 합병증은 더 무섭다. 대상포진을 앓았던 환자 10명 중 한두 명은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다. 가장 흔한 합병증은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 수포가 발생한 자리를 따라 수개월에서 수년 동안 통증이 지속된다. 특히 대상포진이 얼굴에 발생했다면 안면 신경마비나 뇌수막염, 녹내장과 각막염, 시력 손상과 같은 안질환 등의 합병증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전문가들은 대상포진을 예방하려면 무엇보다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라고 강조한다. 무더위로 땀을 많이 흘리고 몸이 지치는 만큼 영양을 골고루 보충하고 규칙적인 수면과 운동으로 면역력을 유지해야 한다.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즐겨 먹고 면역세포 강화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D 합성을 위해 매일 20분 이상 햇빛을 쬐는 것도 좋다. 나이가 많은 노인이나 갱년기 여성 등은 백신을 접종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⑩

# 무엇이 '82년생 김지영 신드롬'을 만들었을까

- <82년생 김지영>과 공감의 힘

# 82



최근 서점가에서는 조남주 작가의 <82년생 김지영>이 한마디로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다. 처음 발간되었을 때만 해도 그다지 세간의 관심을 받지 못했던 이 소설은 차츰 입소문이 퍼지더니 발간 7개월 만에 10만부 판매를 돌파했다. 무엇이 이러한 신드롬을 만들었을까.

글\_정택현(대중문화 칼럼니스트)



### 〈82년생 김지영〉의 입소문과 역주행

지난해 10월 출간된 소설 〈82년생 김지영〉은 당시만 해도 별반 세간의 관심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 조금씩 곱돌대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역주행을 하며 서점가의 베스트셀러 1위에 올라섰고 7개월 만에 판매부수 10만 부를 돌파하는 엄청난 열풍을 만들었다. 그 세대는 1982년생부터 조금씩 번져나가 1972년생부터 1992년생까지 폭넓게 확산했으며, 심지어 여성이 아닌 남성들까지 그 공감 대열에 합류했다. 김지영은 소설의 주인공에서 이제 당대를 살아가는 여성의 아이콘이 되었고, 나아가 각박한 현실을 하루하루 버텨내며 살아가는 모든 약자의 고유명사처럼 되어버렸다. 도대체 이 소설의 무엇이 이런 힘을 발휘하게 한 걸까.

그것은 바로 입소문에 의한 독자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이었다. 여성과 청년같이 어딘가 소외되어 있어 오히려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었고, 그 작은 목소리에 하나하나 동참하면서 거대한 목소리가 만들어진 것. 이렇게 된 건 이 소설이 ‘우리 사회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라는 질문을 김지영이라는 1982년에 태어난 여성 화자를 통해 담담히 기록하듯 던지고 있기 때문이다.

### 특별한 개인이 아니라 보통의 개인이 주는 공감

보통의 소설들이 특별한 개인을 주인공으로 삼는 경향이 있는 반면 〈82년생 김지영〉은 정반대로 보통의 개인을 세웠다. 그래서 이 김지영은 그녀가 살았던 시대의 대표성을 띠는 인물로 그려졌다. 이 점에서 이 소설이 어떤 소설 미학을 추구했다기보다는 많은 이의 공감을 목표로 했다는 걸 알 수 있다. 〈PD수첩〉의 작가로 활동한 전력이 있는 조남주 작가는 그래서인지 소설보다는 ‘보고서’에 가까운 정도의 객관성을 유지하려 했고, 심지어 소설에 등장하는 어떤 실제 사건들에 주석을 달아 그 사건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덧붙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보고서 같은 형식이 주는 객관적 거리는 소설처럼 인물에 깊이 몰입하기보다 이 소설이 그 공감대를 더욱 폭넓게 가져가게 된 원인이 되었다. 즉 대부분의 여

성주의 소설이나 에세이 같은 글들이 그들의 노선(?)을 명확히 드러냄으로써 오히려 그 바깥에서 서서 머뭇거리려는 이들을 끌어들이지 못했던 반면, 〈82년생 김지영〉은 주장이 아닌 소설로서 주인공에게 공감하게 하고, 또한 그 주인공과의 거리를 객관적으로 유지시킴으로써 이 소설이 단지 여성들만의 토로나 눈물이 아닌 좀 더 보편적인 공감대(심지어 남성 독자들도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로 나아갈 수 있게 했다.

### 우리 시대의 여성주의, 왜 공감을 추구해야 할까

이 책이 더 큰 의미를 갖는 건 그것이 페미니즘의 범주에 머물지 않고 더 넓은 세대, 성별을 뛰어넘는 보편성을 가졌다는 점이다.

사실 페미니즘만큼 현재 우리 사회에 중대한 담론으로 자리한 것도 없다. 그것은 단지 작년에 벌어진 강남역 살인 사건 같은 중차대한 사안이 촉발했기 때문인 것만은 아니다. 그것은 보다 큰 관점으로 보면 ‘차별 없는 사회’라는 더 큰 가치를 실현하는 과정에 들어가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여성들이 겪고 있는 현실이 더 이상 그들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인식을 할 때, 비로소 그 사회 또한 살만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두가 이해하는 그 가치를 어떻게 확장시키느냐 하는 점이다. 페미니즘의 특성상 주장은 지적과 비판이 되기 쉽고, 그래서 남성들을 그 대열에 동참시키는 데는 효과적이지 않다. 〈82년생 김지영〉은 그런 점에서 보면 이러한 여성의 입장을 공유시키는 방식으로 ‘소설을 통한 공감’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가를 보여준 사례가 되었다.

소설에 대한 공감이 여성들이 처한 입장에 대한 공감으로 확대되는 그 장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건 정치권에서 이 소설에 대해 쏟아진 미담들이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선물하며 건넨 ‘82년생 김지영을 안아주십시오’라는 문구에 대중은 박수를 보냈다. 그 뭉클한 미담이 보여주듯 〈82년생 김지영〉 신드롬은 공감의 놀라운 힘을 보여주었다. ☐

# COURT NEWS

## 서울중앙지법 '로스쿨 여름 인턴십' 프로그램 실시



서울중앙지방법원(법원장 강형주)은 2017. 7. 3.(월) ~ 7. 14.(금)까지 2주 동안 관내 3개 법학전문대학원(서울대, 성균관대, 중앙대)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로스쿨 여름 인턴십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2016. 12. 5. 서울대, 2016. 12. 28. 성균관대, 2017. 1. 16. 중앙대 로스쿨과 '우수한 법률가 양성 및 법률문화 발전을 위하여 로스쿨 학생들에게 실무수습 및 법률봉사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번 실무수습은 위 협약에 기초하여 실시되는 첫 번째 행사였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최대한 많은 로스쿨생이 법원 생활 및 업무를 부담 없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기획되었는데, 각 로스쿨 측의 의견을 존중하여 가장 학업 부담이 적은 7월 초를 실시 시기로 정하였습니다. 7. 3.~7. 7. 실시된 1차 실무수습에는 28명(1학년 12명, 2학년 14명, 3학년2명), 7. 10.~7. 14. 실시된 2차 실무수습에는 32명(1학년 19명, 2학년 12명, 3학년 1명)의 로스쿨생이 참여하여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로스쿨 1개 학년 정원(서울대 150명, 성균관대 120명, 중앙대 50명 합계 320명) 대비 실무수습 인원(60명)은 약 20%에 육박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은 최대한 많은 로스쿨생이 법원 생활 및 업무를 부담

세부 프로그램에는 민사, 형사, 보전소송 및 민사집행, 민사조정, 영장실무 기본교육 외에도 판사, 재판연구원, 국선전담변호사와의 간담회가 포함되었고, 기본교육은 서울중앙지법에서 해당 재판을 담당하는 경험 풍부한 법관이 담당하고, 간담회는 로스쿨 출신 초임 판사, 재판연구원 등이 담당하였습니다. 로스쿨생들이 진로를 선택하고 준비할 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특히 재판연구원과의 간담회는 각 로스쿨 출신 선배 재판연구원이 학교별로 나누어 진행함으로써 격의 없는 질의응답이 이뤄졌습니다.

## 2017년도 위탁보호위원 위촉식



창원지방법원(법원장 박효관)은 2017. 7. 5.(수) 15:00 대회의실에서 2017년도 위탁보호위원 위촉식을 가졌습니다. 법원장은 이번 위촉식에서 신규 위촉된 55명, 재위촉된 77명의 위탁보호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습니다.

법원장은 위탁보호위원들에게 우리 사회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청소년들이 비행친화적인 환경 속에서 헤어나갈 수 있도록 아이들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 주고, 그 아이들의 부모나 친구, 혹은 스승이 되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도해 주기를 당부했습니다.

대해 소개하고 위탁보호위원 활동에 대해 안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위촉장 수여 후 정상철 부장판사와 전미연 소년조사관은 소년재판에

### ● 국제재판부 영어 변론 시범 실시



특허법원(법원장 이대경)은 2017. 6. 28.(수) 15:00 ~ 16:00 301호 법정에서 2016허7695 거절결정(특)사건(원고: 3M, 피고: 특허청장)에 관하여 영어 변론을 시범실시하였습니다.

지식사회화에 따른 글로벌 지식재산에 대한 주도권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특허의 허브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외국어로 변론할 수 있는 국제재판부의 설치 필요성이 국·내외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제재판부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특허법원은 국제재판부 신설에 대비하고 국제적 사법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그동안 영문판결집, 영문IP

저널 발간, 영어·중국어·일본어 심리매뉴얼 제공, 원격 영상 증인 등 신문절차 준비, 영문 판결문 DB 구축, 통·번역 인력 육성 등 일련의 준비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국제재판부 시범실시는 그 일환으로서 국제재판부 도입 준비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적절한 운영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영어 변론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원조직법 개정법률안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당사자 쌍방이 영어 변론에 동의하고 재판부가 영어로 변론을 허가하여 영어 변론이 진행되었습니다. 변론에서 원·피고 대리인은 영어로 구술변론을 진행하고, 재판부는 위 법률안에 따라 국어로 소송 지휘를 하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영어로 요약하여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청객을 위해 영한/한영 동시통역이 제공되었습니다.

### ● 2017년도 디딤돌연구회 2차 정례회의



대구가정법원(법원장 박민수)은 2017. 7. 10.(월) 10:30 6층 소회의실에서 권성우 선임부장판사 등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도 디딤돌연구회 2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정례회의에서는 디딤돌연구회 회장인 권성우 선임부장판사의 인사말씀을 시작으로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대구의료원과 업무협약,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구지부와의 협력사업내용, 2018년도 협의이혼 의무면담제도 운영, 후견사건 실무연구회 워크숍 관련, 2017년도 상반기 후견프로그램 추진 경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대구가정법원은 이번 디딤돌연구회 토론 결과로 나온 의견들을 적극

수렴하고, 보다 다양한 후견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원사람들  
원고모집

법원 가족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원고가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더불어 '스타일링 Q'와 '만나고 싶었습니다'에 참여해 주신 분께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 원고 분량 : PC로 작성할 경우 A4용지 3장 내외
- 원고 마감 : 수시
- 보내실 곳 : E-mail\_법원사람들@scourt.go.kr
- 문의전화 : 02-3480-1456 공보관실
- 법원사람들 홈페이지 : <http://www.scourt.go.kr/portal/gongbo/PeoplePopulList.work?gubun=7>

사법부 홍보를 위해 대법원 페이스북, 트위터와 블로그 "명쾌한 판사와 함께하는 법원스토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원 가족 여러분의 많은 방문을 부탁드립니다.

- 페이스북 주소 : <http://www.facebook.com/scourtorea>
- 트위터 주소 : <http://www.twitter.com/scourtorea>
- 블로그 주소 : [http://blog.naver.com/law\\_zzang](http://blog.naver.com/law_zzang),  
[http://blog.daum.net/law\\_zzang](http://blog.daum.net/law_zzang)
- 유튜브 주소 : <http://www.youtube.com/scourtorea>
- 인스타그램 : <http://www.instagram.com/sourthkorea/>



지난호 퀴즈  
당.첨.자.

- 오건창 실무관 관주고등법원
- 김민영 속기사 창원지방법원
- 표신혜 실무관 특허법원
- 한재룡 실무관 청주지방법원
- 이수연 행정관 법원행정처



지난호 퀴즈  
정.답.

편집상 해상도의 차이로 지난 호 「법원사람들」 틀린 그림 찾기는 4개입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법원사람들」을 구독하여 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른  
그림찾기

법원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법원사람들」을 만드는 데 반영하겠습니다. 2017년 「법원사람들」에 관한 소감을 '다른그림찾기' 정답과 함께 보내주세요.

서로 다른 부분을  
다섯 군데  
찾아주세요.

다른그림찾기 정답은 서로 다른 부분을 표시한 사진을 스캔한 후 e-mail에 첨부하여 해당 월 20일까지 보내주세요.

- e-mail : 법원사람들@scourt.go.kr
- 소감과 다른그림찾기 정답을 모두 보내주신 분들에게 한하여 매월 추첨을 통해 대법원 기념품을 드립니다. 정답 및 당첨자는 다음호에 게재합니다.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 장애학생들의 법원 견학을 즐겁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특수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로 이번에 저희 학생들과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을 견학했습니다.

처음으로 법원에 가봤는데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상당히 잘 짜여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어 능력이 부족한 우리 아이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고 여러 가지 법정 상황을 경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판사, 검사, 피고인석에 앉아보며 마이크에 대고 이야기를 하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아이들을 고려해 맛있는 돈가스를 준비해주셨고, 식후에는 흥겨운 국악 콘서트도 관람하였습니다. 영혼이 순수한 우리 아이들은 흥겹게 박수 치고 즐겼습니다. 제 옆에 앉으셨던 직원분이 흐뭇한 미소로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시며 의자가 들썩이는 학생의 의자도 잡아주시는 것을 보고 감동했습니다.

가는 시간까지 위원장님 및 직원분들이 손을 흔들어주셨고, 배려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신 위원장님, 판사님 그리고 진행하신 선생님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2017. 4. 배 ○○

